

좋은병원들

앞선의학, 좋은병원

2025 Summer Vol.77



좋은문화병원 | 부산 (051)644-2002

좋은삼정병원 | 울산 (052)220-7500

좋은연인요양병원 | 밀양 (055)350-9988

좋은주례요양병원 | 부산 (051)325-0300

좋은삼선병원 | 부산 (051)322-0900

좋은선린병원 | 포항 (054)245-5000

좋은리버뷰요양병원 | 부산 (051)995-0900

좋은선린요양병원 | 포항 (054)245-0600

좋은강안병원 | 부산 (051)625-0900

좋은애인요양병원 | 부산 (051)520-7700

좋은부산요양병원 | 부산 (051)326-0900

좋은사랑요양병원 | 부산 (051)220-7000



좋은병원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좋은병원들
페이스북
팔로우 신청



좋은병원들
소식지
바로 보기

인스타그램

goodhospitals

스레드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

유튜브

좋은병원들



표지

화양연화
작 백명숙

발행일 2025. 7. 1

발행인 은성의료재단 이사장 구자성

발행처 좋은문화병원, 좋은삼선병원, 좋은강안병원
좋은삼정병원, 좋은선린병원
좋은애인요양병원, 좋은연인요양병원
좋은리버뷰요양병원, 좋은부산요양병원
좋은주례요양병원, 좋은선린요양병원
TEL. (051)310-9419 FAX. (051)316-9295
www.goodhospital.or.kr

편집장 좋은문화병원 내분비내과 안준협

편집위원 은성의료재단 기획홍보팀 이흥근
좋은문화병원 기획홍보팀 이유리, 배지혜
좋은삼선병원 기획홍보팀 유정화
좋은강안병원 기획홍보팀 정민호, 백선아
좋은삼정병원 기획관리팀 문석환
좋은선린병원 기획홍보팀 송육진
좋은애인요양병원 사회사업실 최혜빈
좋은연인요양병원 원무팀 조병재
좋은리버뷰요양병원 원무팀 김재혁
좋은부산요양병원 행정부 김태곤
좋은선린요양병원 사회사업실 김진경

편집·인쇄 디자인글꼴

TEL. (051) 636-1215 www.ggad.co.kr



04



06

Column Section

여는 이야기

- 04 강한 주인의식이 최고의 경쟁력
김판규 좋은사랑요양병원 부원장

Issue Section

좋은병원들 이야기

- 06 ① 좋은삼선병원 개원 30주년
08 ② 좋은강안병원 개원 20주년
10 ③ 좋은사랑요양병원 개원
11 ④ 좋은병원들 산불피해 이재민 위해 1억 기탁
12 ⑤ 좋은병원들 어린이날 환우 상대 특별 행사 &
좋은병원들 어버이날 어르신 입원 환자에 카네이션 선물
13 ⑥ 좋은병원들 건강 캠페인
14 ⑦ 좋은병원들 제29회 기장멸치축제 의료지원 &
좋은병원들 국제 걷기축제 건강부스 운영 및 캠페인
15 ⑧ 좋은병원들 디지털 가속화로 경쟁력 높인다 &
좋은문화병원 문화속 병원장
미국부인과내시경학회심사위원으로 위촉



Medical Section

건강칼럼

- 16 ①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난자 냉동'으로 미래 준비
설현주 좋은문화병원 난임센터·산부인과 과장
- 18 ② 허리 수술, 꼭 받아야 할까요? 최소침습 수술의 진화
최윤희 좋은삼선병원 척추센터·신경외과 과장
- 20 ③ 완치 가능한 병, 백혈병 이야기
정주섭 좋은강안병원 암센터·종양혈액내과 센터장

좋은언론정보

- 22 ① [부산일보] '침묵의 장기' 공팔
허수정 좋은문화병원 신장내과 과장
- 24 ② [국제신문] 척추관 협착증 교령은 수술 못한다?
양방향 내시경은 가능
김종열 좋은삼선병원 척추센터·신경외과 센터장
- 26 ③ [부산일보] 갑상선암 수술 부작용 줄이려면
이병주 좋은강안병원 갑상선두경부센터 센터장
- 28 ④ [경상일보] 담관결석
정창길 좋은삼정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 센터장

Culture Section

여행을 떠나요

- 30 보석 같은 갈맷길
풍광에 매료돼 탄성만

Hospital Section

- 34 감사의 편지
- 36 칭찬해~ 잘했어!
- 37 좋은병원들 유튜브
- 38 좋은병원들 뉴스
- 42 언론에 비친 좋은병원들
- 44 병원진료안내
- 45 독자퀴즈

강한 주인의식이 최고의 경쟁력



김판규

좋은사랑요양병원 부원장

병든 주인이 건장한 열 사람을 능가한다는 속담이 있다. 시름 시름하지만 노구의 병든 주인이 그래도 장성한 머슴 열 명이 하는 것 보다 낫다는 진심어린 말이다.

그리고 머슴의 눈에는 “벼 못자리의 잡풀(일명 피)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즉 주인의식은 어떤 일을 하면서 근성으로 대하기보다 이일은 내가 어떻게 시작하여 언제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이 바로 주인의식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최고 경영자들(CEO)을 만날 때 마다 한결 같이 들은 푸념들은 “직원들이 좀 더 주인의식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다.



CEO의 눈에는 문제점들이 뭉치로 흰하게 보이고, 해결방안이 유리알 같이 선명하게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직원들의 눈에는 경험도 부족하지만 소요되는 예산이랑 인력동원의 한계 등으로 시간을 끌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급기야는 상사로부터 “해결방법을 찾기 보다는 핑계를 댈 방법을 찾는다”고 혀를 차는 리더들을 참 많이 봐 왔다. 그리고 핀잔 아닌 불호령이 떨어진 경우도 많이 있었다.

맞다. 조직관리에 있어서 주인의식의 함양에 대해 밤새도록 토론해도 결국 어느 정도의 간격은 좁혀질지 몰라도 명쾌한 공통의 정답을 찾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어찌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 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교육수준, 사물을 보는 가치관의 차이로 문제 해결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공할 수는 없지만 실수를 통해 왜 실수했는지 늘 반성하고 대안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더 나은 방법을 줄기차게 찾아감으로써 다음 도전에서는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쌓아가게 된다. 이것이 배움이고 교육이다. 이렇게 성실히 노력하는 직원은 결국 크게 성장하고 개인의 꿈을 이루기 마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범한 말이지만 누구라도 할 일이면 내가 먼저 하고, 언제라도 할 일이면 지금 바로 하고, 어차피 할 일이면 즐겁게 제대로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사회생활은 모든 사람이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 서로 의지하며 소속감을 갖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누구를 만나 그 소중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한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는 법구경 말씀도 있다. 우리가 처리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스스로 자기 것으로 잘 만들어 고객에게 가장 쉽게 나아가 유익하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조직의 신용의 가치는 더 크게 제고될 것이다.

실제 살아가면서 가장 달콤한 시간은 열심히 일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함께 성취한 후 일한 뒤에 갖는 휴식이 바로 보람이고 행복이다.

리더는 생명을 불어 넣는 사람이다. 생명이란 단순히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다는 개념을 넘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에너지인 것이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존경 받기는 어렵지만 신뢰받기는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먼저 상대를 진심으로 먼저 배려하라고 권하고 싶다. 상대가 원하는 요구 사항을 잘 듣고 바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신속히 즉시 처리하고, 더 시간이 걸리고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먼저 양해를 얻어 여유를 갖고 제대로 처리함으로써 신뢰가 구축되고 서로 믿고 감사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신용은 은행 적금처럼 쌓이기 마련이다.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는 머리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회의실에서는 언제나 자유롭게 기탄없이 충분히 토론하고 그 후 결정된 사항은 모두 동참하여 한 방향으로 일사분란하게 실천토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직이야 말로 강한 조직이고 주인의식이 확실한 구성원들이다. 이렇게 모두가 윈 팀이 되어 힘차게 나아가 갈 때 조직의 힘은 더 강해지고 우리 구성원 모두는 더 빨리 성장하고 나아가 큰 꿈을 반드시 실현하게 될 것이다.

조직과 개인의 성장은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소통과 신뢰를

쌓아갈 때 가능하다.

좋은삼선병원 개원 30주년

“지역사회와 함께한 30년, 새로운 미래로 새출발”



좋은삼선병원은 지난 5월 20일(화)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부산 그랜드볼룸에서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병원의 설립 취지인 ‘직원·환자·사회가 가장 좋아하는 병원’답게 이번 행사에는 당직을 제외한 병원 전 직원과 수술 받은 환자대표들, 그리고 병원이 위치한 사상구를 비롯한 관내 대학과 장학회 문화원 봉사센터 장애인협회 행복복지센터 등 기관 및 단체 대표 및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30년간 병원이 쉼 없이 내달려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도약을 다짐하였습니다. 모범직원 및 장기근속자(10, 20, 30년) 표창과 뮤지컬 공연 등도 이어졌습니다.



박성우 병원장의 기념사를 통해 “환자 중심, 사람 중심의 진료 철학 아래 지난 30년간 지역사회 보건 향상과 사회 공헌을 위해 묵묵히 실천해 온 병원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전하였습니다.

구자성 이사장은 이날 축하 대신 설립자이자 부친인 구정회 회장과 모친인 문화숙 좋은문화병원장, 그리고 이들과 함께한 옛 병원 직원들의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며 은성의료재단이 지역사회와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걸어온 여정을 담담하게 설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정회 회장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간결하지만 강렬한 울림의 메시지로 지난 30년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표했습니다. 구 회장은 이날 병원 설립부터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공로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좋은삼선병원은 ‘직원·환자·사회가 가장 좋아하는 병원’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I 기술을 접목한 장비 및 시스템 도입, 시민들을 위한 건강강좌 개최, 무료진료 등 사회발전과 좋은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시

좋은삼선병원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5월 11일(일)	광안대교 걷기축제 건강 부스 운영 - 대시민 건강 캠페인
5월 15일(목)	지역주민(주례2동 행정복지센터)과 함께하는 GREEN 플로깅
5월 19일(월)	입원 환자에게 전하는 따뜻한 마음 - 개원 30주년 선물 전달
5월 19일(월)	직원 대상 커피차 이벤트
5월 19일(월)	환자·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희망콘서트
5월 21일(수)	입원환자를 위한 간담회 및 부산영재학교와 함께하는 희망콘서트



좋은강안병원 개원 20주년 성장은 원칙과 현장의 힘



좋은강안병원은 지난 4월 16일(수), 해운대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개원 20주년 기념 만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진료부, 부서장, 장기근속자, 외빈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20년의 발자취를 되짚고 미래 도약을 다짐하였습니다. 행사에서는 장기근속자 시상, 병원장·이사장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20년 근속 직원들이 무대에 올라 보여준 합창 공연은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현장의 뜨거운 박수를 이끌어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연습한 이 무대는 병원을 함께 지켜온 동료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해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구자성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이 시간은 진심이 모여 만든 위대한 결실이다. 20년에 감사하되, 안주하지 말고 더욱 힘찬 도약을 준비 하자”고 독려했습니다.

구정희 회장은 “우리는 늘 현장을 먼저 생각하고 병원이 확장되더라도 원칙을 지키려 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직원이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8시 본관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갖고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였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특별영상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경영부원장 연혁보고 ▲모범직원 시상 ▲허현 병원장 기념사 ▲구자성 이사장 축사 ▲구정희 회장 격려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허현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20년이 미래를 위한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동료와 소통하며, 자부심을 갖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고 전하였습니다.

좋은강안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시

좋은강안병원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4월 10일	좋은병원들 내과 심포지엄
4월 14일	커다란 꿈을 응원하는 작은 갤러리 - 아동복지시설 모금 전달
4월 15일	입원 환자에게 전하는 따뜻한 마음 - 개원 20주년 선물 전달
4월 22일	좋은강안병원 로비음악회 - 유방암 환우회 나눔사랑 합창단
4월 28일	건강한 발걸음 따뜻한 나눔!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로깅
5월 16일	사랑의 쌀, 희망을 나누어요 - 이웃돕기 성품 전달(수영구청)
5월 17일	사랑가득 선물꾸러미 나눔 - 아동복지시설 전달(적십자)





좋은사랑요양병원 개원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이 지난 6월 1일(일), **좋은사랑요양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사하역 6번 출구 쪽(괴정동)에 자리 잡은 좋은사랑요양병원은 서부산권 노인 재활 의료서비스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좋은사랑요양병원은 280병상 규모로, 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의학과, 산부인과 등의 진료과목을 두었습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재활치료 환자도 진료하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이 병원은 뇌졸중, 중풍, 치매 등 뇌혈관 질환 재활 중점 요양병원을 추구합니다. 재활 의학과 전문의와 18명 재활팀 치료사 전원이 뇌혈관 질환 재활을 전문

적으로 수행하는 중추신경발달치료(보바스·NDT·PNF) 자격증 소유자입니다.

좋은사랑요양병원은 은성의료재단의 일곱 번째 요양병원입니다. 은성 의료재단은 현재 좋은애인·리버뷰·부산·주례·연인(밀양 삼랑진)·선린(포항) 등 6개의 요양병원과 5개의 종합병원(좋은문화·삼선·강안·삼정(울산)·선린(포항)병원) 등 모두 12개의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합니다.

은성의료재단 구자성 이사장은 “차별화된 치료 및 요양서비스로 서 부산권의 고품격 요양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좋은병원들 산불피해 이재민 위해 1억 기탁



좋은병원들은 지난 4월 7일(월) 오후, 최근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와 수많은 이재민을 위해 1억 원을 대한적십자 부산지사에 기탁**하였습니다.

좋은문화·삼천·강안병원의 경영·행정 책임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문나겸 좋은강안병원 경영부원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작은 나눔이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은성의료재단은 피해 지역의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앞서 은성의료재단은 2022년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고액기부자 모임인 대한적십자사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듬해인 2023년엔 은성의료재단 구정희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이름을 등재하였습니다.

좋은병원들은 지역민들을 위해 평소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수이지만 향후 우리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등으로 5년째 매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에도 관심이 커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등도 후원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좋은병원들 어린이날 환우 상대 특별 행사

좋은병원들 어버이날 어르신 입원 환자에 카네이션 선물

좋은병원들은 지난 5월 3일(토), **어린이날**을 맞아 소아병동 어린이 입원 환자들과 내원한 어린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문화기업 교원 빨간펜과 공동으로 선물을 제공하고 룰렛 이벤트와 캐릭터 인형과의 포토타임을 가졌으며 기질 및 조화적합도 무료 검사도 진행하였습니다.

좋은문화병원 하수진 친절위원장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병원을 찾는 아이들에게 아픔을 잊고 웃음을 안고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한 병원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좋은병원들은 지난 5월 8일(목), **어버이날**을 맞아 병동에 입원 중인 어르신 환자들을 위해 따뜻한 감사 행사를 열었습니다.

각 병원 간호부와 친절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병실을 찾아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손수 준비한 선물과 따뜻한 인사로 정을 나눴습니다.

좋은강안병원 김경미 간호부장은 “한 송이 카네이션에 담긴 진심이 가정을 떠나 입원 중인 어르신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좋은병원들은 매년 어버이날을 ‘마음 나눔의 날’로 정해 병상에서 회복 중인 어르신 환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좋은병원들 건강 캠페인

외래·입원 환자 대상
조기 예방과
관리 중요성 알려

좋은병원들은 지난 4월~6월, 건강
기념일을 맞이하여, 건강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세계 파킨슨병의 날(4월 11일)은 파킨슨병을 처음으로 의학적으로 보고한 영국의 제임스 파킨슨 박사의 생일을 기념해 제정된 국제 기념일입니다. 이 날은 파킨슨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환자와 가족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확산하며, 조기 진단과 치료, 연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계 고혈압의 날(5월 17일)은 고혈압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세계고혈압 연맹(WHL)이 2005년부터 주관해 온 날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고혈압의 조기 발견과 관리를 장려하며, 혈압 측정의 중요성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은 '건강한 치아를 60세까지 유지하자'는 뜻을 담은 슬로건에서 유래해 '6월 9일'로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입니다. 국민의 구강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올바른 치아 관리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 캠페인과 교육 활동이 펼쳐집니다.



좋은병원들 제29회 기장멸치축제 의료지원



좋은병원들은 지난 4월 25일(금),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항 일원에서 열리는 ‘제29회 기장멸치축제’에 참여해 의료 지원활동을 하였습니다.

기장멸치축제는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물 축제로, 매년 수십만 명이 행사장을 찾아 맨손 활어잡기, 무료 시식회, 인기 가수 공연, 불꽃쇼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좋은병원들은 축제기간 행사 현장에 의료지원 부스를 설치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환자 후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방문객 다수가 노년층 및 가족 단위인 점을 고려해 기장군보건소와 합동 응급상황 대응체계도 운영 중입니다.

좋은문화병원 황종식 경영부원장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단순한 진료를 넘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통해 앞으로도 건강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좋은병원들 국제 걷기축제 건강부스 운영 및 캠페인



좋은병원들은 지난 5월 11일(일), 광안리 일원에서 열린 ‘2025 다이아몬드브리지 국제 걷기축제’에 참가해 건강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걷기축제는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운대 벅스코를 출발해 부산의 상징인 다이아몬드브리지(광안대교)를 가로질러 국립부경대학교 대운동장에 이르는 총 7.5km 구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좋은병원들은 시민들의 건강한 걷기 문화를 응원하고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착 지점인 부경대 대운동장 내에 합동 지원 부스를 설치하고 건강 캠페인과 함께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였습니다.

좋은삼선병원 박성우 병원장은 “시민의 활기찬 에너지와 건강에 대한 열정을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며 “좋은병원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갔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좋은병원들 디지털 가속화로 경쟁력 높인다

구글워크스페이스, 앱시트 등 실무 적용
소속 병원 실무 관계자 혁신사례 공표

좋은병원들은 지난 4월 21일(월) 오후 5시, 좋은강안병원 대강당에서 ‘좋은병원들 디지털 혁신 데이’를 열어 산하 병원들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좋은병원들이 구글워크스페이스(GWS), 구글앱시트, AI 기반 도구 등을 실무에 적용하며 이룬 업무 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 체계로의 전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는 외래 진료 일정 통합, 회의자료 공유, 원격 화상 회의 등 GWS를 기반으로 한 협업 사례, 구글앱시트를 활용한 QI 활동 점검, 감염관리 프로세스 개선, 외래 동의 절차의 디지털 전환 등이 소개되었으며, AI 기반 교육 및 문서 자동화 도입 등 병원별 실질적 변화도 공유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구자성 이사장은 “의료현장에서 GWS와 같은 앞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의료진은 진료에 더욱 집중하고 직원들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선례를 계속 만들어나가겠다”며 “이번 사례가 병원의 변화와 성장의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좋은문화병원 문화숙 병원장 미국부인과내시경학회AAGL 심사위원으로 위촉



좋은문화병원 문화숙 병원장이 3년 연속으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부인과내시경학회(AAGL)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미국부인과내시경학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8일~11일, 캐나다 밴쿠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54차 학회에서 문 병원장은 2023년, 2024년에 이어 논문 초록(Abstract)과 영상(Video) 연제 선정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미국부인과내시경학회는 110여 개국 전문가 8,0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부인과 내시경 전문 학회입니다. 이 학회는 산부인과 최소 침습 수술 분야에서 학문적 권위와 기술적 표준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학회의 심사위원으로 3년 연속 위촉되었다는 것은 문 병원장이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신뢰와 전문성을 공인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미국부인과내시경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Minimally Invasive Gynecology(JMIG·최소 침습 부인과 저널)’는 이 분야 최고의 저널로 손꼽힙니다.

한편, 문 병원장은 미국산부인과학회지(AJOG) 등 SCI·SCOPUS급 세계 유명 등재지에 지금까지 총 25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Good Moonhwa

‘난자 냉동’은 질병 치료나 당장의 임신 계획은 없지만 아이를 낳고 싶은 여성들에게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 확대로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난소 기능이 저하되기 전인 35세 이전에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 이후에도 시도는 가능합니다.



설현주

좋은문화병원 난임센터·산부인과 과장

전문 진료 분야

난임,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난자 냉동, PGT(착상전유전진단)
습관성 유산,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자궁경 수술
English-Speaking Doctor

진료 예약 및 상담 1577-1359

진료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격주
오후		진료	진료		진료	

※ 의료진의 학회 참석 및 연수 등으로 인해 진료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일 진료시 전화로 확인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달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휴진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난자 냉동’으로 미래 준비

한 번에 얼릴 수 있는 난자 양과 보관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한 번에 얼릴 수 있는 난자 양은 본인의 난소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냉동 난자로 임신을 시도할 때 대략 50~60% 정도의 임신율을 기대하려면, 30대 중반 여성의 경우 대개 25~30개 정도의 난자가 필요 한데, 한번에 채취되는 난자 수는 평균적으로 10~15개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 2회의 시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난자는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에 보관되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보관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40대 중반 이후에 얼려놓은 난자로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자궁근종과 같은 부인과 질환이 흔하게 발생 하기 때문에 임신이 어려울 수 있으며, 또한 얼려 놓은 난자로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40대 초까지는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자 냉동이 필요한 경우

- ✓ 난소 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 ✓ 조기폐경 징후가 있는 경우
- ✓ 향후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
- ✓ 늦은 나이에 임신을 원하는 경우
- ✓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예정인 경우
- ✓ 난소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수술, 치료 예정

난자 냉동이란?

나이가 들수록
가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건강한 난자를
동결·보존하는 방법입니다.



* 고려 임신 기준 : 만 35세 이상

냉동 난자, 일반 난자보다 질이 떨어지나요?

냉동 난자 생존율을 높이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요?

냉동 난자를 해동했을 때 생존율은 약 90% 정도이며, 냉동 난자를 이용한 임신율도 일반 난자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냉동 난자도 일반 난자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냉동 난자의 생존율이 좋아진 이유는 ‘유리화 동결법’을 이용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유리화 동결법은, 난자를 초저온으로 급속 냉동하여 난자 내에 얼음 결정이 생기는 것을 막아 난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신화된 연구시설 및 숙련된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난자 냉동부터 이식까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난자 냉동부터 이식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난소 기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주사제의 종류와 용량을 결정하고, 생리 시작과 함께 평균 10일 정도 과배란 주사를 맞게 되며, 이때 초음파 검사로 난포의 크기가 18mm에 도달하면 난자 채취를 시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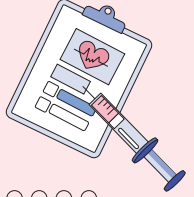
이와 같은 과배란 과정 중에, 최소한의 시술로 많은 수의 난자를 얻으려고 하다보니 난자 채취 이후에 복수가 차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수가 최소한으로 생기게 하는 약을 쓰고, 복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수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됩니다.

채취된 난자는 수시간내에 유리화 동결 과정을 거쳐 액체 질소에 보관됩니다. 이후 환자분이 난자를 사용하기 위해 내원하면 초음파 검사로 자궁 및 난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환자분의 생리 주기에 맞추어서 이식을 계획하게 됩니다. 해동된 난자는 미세수정 방법으로 정자와 수정을 시키고, 이렇게 수정된 배아는 3~5일 동안 배양실에서 키워서 자궁 내에 이식하게 됩니다.

난자 냉동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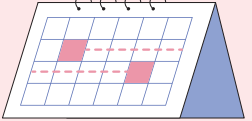
1

사전 검사
난소기능 평가 시행 뒤
다음 생리 시작 후 2~3일째 되는 날
과배란 유도 주사 처방



2

과배란 유도
10일 정도 처방받은 주사를
스스로 복부에 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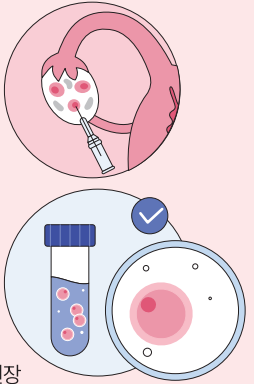


3

난자 채취 & 냉동
난포가 모두 자란 후
난자 채취 및 동결 진행

총 2~3회 시술에
사용할 수 있도록
30개 전후로
동결을 권장합니다.

| 난자 냉동 권장 개수
• 35세 미만 : 10~15개
• 35~37세 : 15~20개
• 38세 이상 : 더 많은 개수 권장



4

보관
5년 이상 보관 가능합니다.

| 유리화 동결법
세포 내에 존재하는 수분을 고체 상태가 아닌
유리화 상태로 보존하는 방법으로
난자 내 손상이 거의 없어
생존율을 높입니다.





Good Samsun

“허리 수술은 무섭다”는 인식은 여전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허리 수술이라 하면 크고 깊은 절개, 많은 출혈, 긴 입원과 회복 기간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환자의 몸에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신경을 효과적으로 풀어주는 ‘최소침습 수술’이 주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 윤 희

좋은삼선병원 척추센터·신경외과 과장

전문 진료 분야

퇴행성 척추질환(척추디스크와 협착증), 척추종양, 감염
골다공증, 최소 침습 척추수술, 양방향 척추내시경(UBE)
전측방척추체유합술(OLIF)

진료 예약 및 상담 051-322-0900

진료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진료	진료	진료	수술	수술	순번
오후	수술	진료	진료	수술	진료	

※ 의료진의 학회 참석 및 연수 등으로 인해 진료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일 진료시 전화로 확인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 수술, 꼭 받아야 할까요? 최소침습 수술의 진화

양방향 내시경 수술과 전측방 척추체 유합술

예전과는 달라진 척추 수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과거에는 허리 수술이라고 하면 큰 절개와 많은 출혈, 긴 회복기간을 떠올렸을 겁니다. 실제로 근육을 넓게 절개하고 뼈까지 제거해야 했던 개방 수술(PLIF)이 주된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런 수술은 통증과 회복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는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신경을 안전하게 풀어주는 ‘최소침습 수술’이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UBE)과 전측방 척추체 유합술(OLIF)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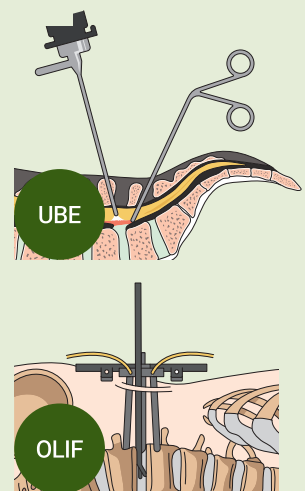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란?

3~5cm의 최소한의 절개로
정상적인 조직은 보존한 상태에서
손상된 뼈나 인대조직 등을 제거

당뇨병, 고혈압, 고령자 환자도 가능

장점

- 수혈이 거의 필요 없음
- 부작용이 적음
- 신경유착이 거의 없음
- 통증과 합병증의 적음
- 허리 근육 위축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 회복이 빠름



양방향 내시경 수술(UBE)이란?

UBE는 피부에 작은 구멍 두 개만 만들어 한쪽에는 카메라, 다른 쪽에는 수술 기구를 넣어 진행합니다. 기존 개방 수술과 비교해도 다음과 같은 장점이 많습니다.

- ✓ 근육과 인대를 절개하지 않고
- ✓ 척추 관절을 살리면서
- ✓ 디스크 절제, 중심관·신경공 감압까지 다양한 시술 가능
- ✓ 회복이 빠르고 흉터도 작아 일상 복귀가 빠른 수술법입니다.

전측방 척추체 유합술(OLIF)이란?

OLIF는 배를 통해 척추 옆으로 접근하는 수술입니다. 뒤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달리 근육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 ✓ 척추체 사이 넓은 공간 확보 가능
- ✓ 큰 케이지(척추 지지구조물) 삽입이 가능해 척추 안정성 증가
- ✓ 출혈이 적고, 대부분 피주머니도 필요 없음
- ✓ 후방 관절을 건드리지 않기에 통증 감소
- ✓ 특히 반복 수술로 후방 유착이 심한 환자에게 더 안전한 수술 옵션입니다.

케이지만 넣어도 신경이 풀리나요?

단순히 케이지를 넣는 것만으로 신경이 정말 풀릴까? 답은 “그렇다”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척추체 사이 공간을 충분히 벌려 주기만 해도 신경 압박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물론 드물게 석회화된 인대가 있으면 추가 감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술을 선택할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수술법 선택에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 ✓ 환자의 나이, 직업, 생활습관
- ✓ 과거 수술 여부
- ✓ 현재의 통증 정도와 일상생활 장애 수준

예를 들어, 건강한 50대 환자가 처음 디스크로 내원했다면 보존적 치료(약물, 주사, 물리치료)가 우선입니다. 반면, 과거 수술력이 많고 신경 유착이 우려되는 경우엔 OLIF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신경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최소한의 손상으로 최대한의 회복을 이끄는 수술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척추 건강을 위한 5계명

출처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2018



수술은 마지막 선택입니다

수술만이 답은 아닙니다. 30분 이상 걷는 데 무리가 없다면 약물치료와 시술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수술은 통증을 완전히 없애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신경이 눌린 부위를 풀어주고, 척추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면 고정해주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본인의 척추를 오래 아껴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요즘의 척추 수술은 과거보다 훨씬 정교해졌고, 기술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골 유합제, 기구, 내시경 기술까지 전반적인 의료 수준이 올라간 덕분에 수술 결과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수술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Good Gang-an

20세기 영화에서 죽음을 암시하던 백혈병은 이제 완치가 가능한 질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의 발전 덕분에 백혈병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령 인구 증가로 백혈병 환자는 늘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 곁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백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 주 섭

좋은강안병원 암센터·종양혈액내과 센터장

전문 진료 분야

혈액암 (백혈병, 림프종, 골수종)

만성혈액질환 (빈혈, 혈소판 질환)

고형암 항암치료(두경부암, 위암, 대장암, 담도암 등)

진료 예약 및 상담 051-625-0900

진료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격주
오후	진료	진료		진료	진료	

※ 의료진의 학회 참석 및 연수 등으로 인해 진료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일 진료시 전화로 확인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치 가능한 병, 백혈병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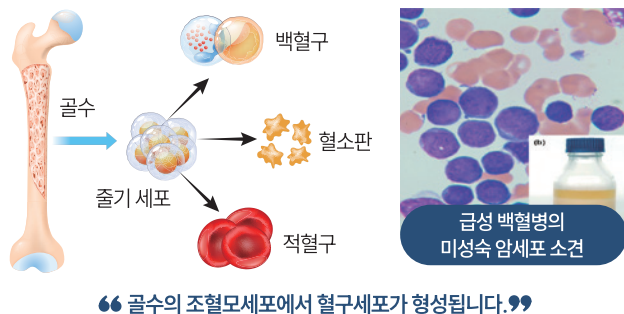
21세기 백혈병, 더 이상 죽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러브 스토리>, <라스트 콘서트>, <사랑의 스캔나>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고전 영화들입니다. 이 영화들에서 여주인공은 모두 백혈병에 걸립니다. 영화의 전개 과정에서 여주인공이 곧 죽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장치로 사용됩니다. ‘백혈병’이라는 병명이 주는 어감은 여주인공의 이



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가련하고 청초하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만약 여주인공이 흑사병에 걸렸다고 하면 죽음을 암시할 수는 있겠지만, 순결한 이미지에는 오히려 손상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영화 속에서 백혈병은 더 이상 주인공의 죽음을 암시하는 병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21세기의 백혈병은 더 이상 곧 죽음을 의미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백혈병은 완치가 가능한 혈액암입니다.

‘백혈병’이라는 단어는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피가 하얗게 된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혈액이 하얗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백혈병을 급성으로 빠르게 진행하여 수개월 내에 사망하는 급성 백혈병, 그리고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 백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성 질환이 만성으로 이행되는 다른 의학적 질병 개념과는 달리, 백혈병에서는 오히려 만성 백혈병이 급성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급성 백혈병이 만성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백혈병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치료가 시작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 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명법의 오류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혈병은 뼈 속 깊은 골수에 위치한 피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조혈모세포)의 돌연변이로 시작됩니다. 미성숙한 채로 골수에서 증식하면서 병을 일으키는 급성 백혈병과, 비교적 성숙한 세포를 골수에서 과다 생성 및 축적하여 병을 유발하는 만성 백혈병으로 분류됩니다. 즉, 골수에서 암세포가 증식하는 혈액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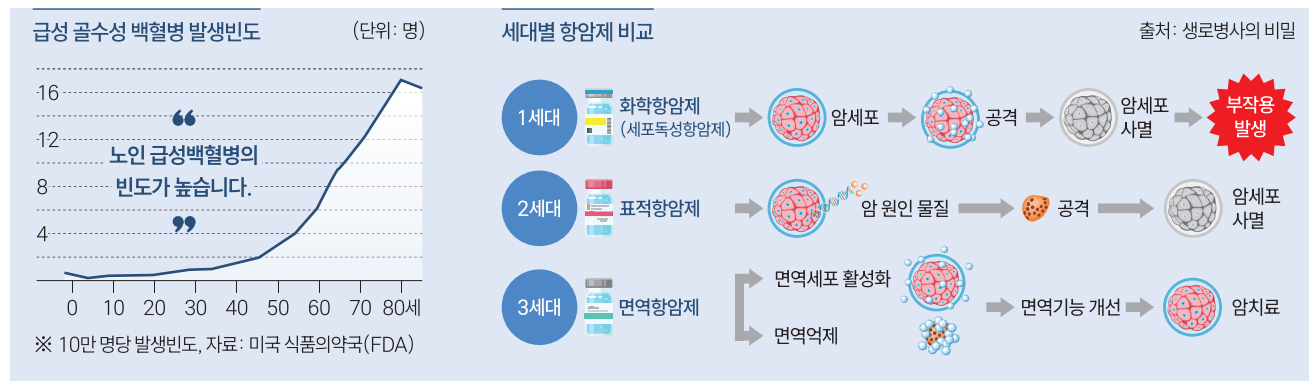
백혈병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항암치료 경력, 유해 물질 노출(벤젠, 톨루엔), 바이러스 감염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백혈병’ 하면 어린이 혹은 청년 환자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가 훨씬 많습니다.

초기 증상은 피로감, 발열과 오한, 코피와 잇몸 출혈, 쉽게 드는 멍 등 비특이적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 면역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폐렴이나 패혈증 같은 감염이 동반되며, 혈소판 감소로 인해 뇌출혈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혈병의 항암치료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백혈병은 이제 완치가 가능한 암으로 바뀌었고, 사실 폐암·대장암·위암 등 모든 암에 대한 항암치료의 발전은 백혈병 치료 연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골수이식), 표적치료, 면역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이 환자의 상태와 백혈병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됩니다.

백혈병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한 혈액암입니다. 혈액검사로서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기에, 피로감이나 잦은 감염, 출혈 등 의심 증상이 있거나 정기 검진에서 혈액검사 이상 소견이 보일 경우, 혈액내과 진료를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에서 백혈병은 과거처럼 극적인 병으로 다뤄지지 않지만, 고령 사회에 접어들며 백혈병 환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혈병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질병이며, 하루빨리 모든 백혈병 환자들이 완치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좋은문화병원

부산일보

바로가기



18면

신장내과 허수정 과장

2025년 5월 20일(화)



콩팥에 이상이 생겨도 대개 아무런 증상이 없어 ‘침묵의 장기’로 불린다. 좋은문화병원 신장내과 허수정 과장은 “자각 증상이 나타났을 땐 병이 꽤 많이 진행됐거나 만성화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침묵의 장기’ 콩팥

자각 증상 있을 땐
만성화 다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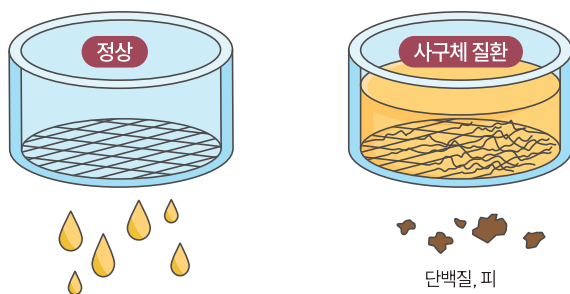
당뇨병성 콩팥병

- ☑ 혈액 속 노폐물 거르는 정수기
- ☑ 사구체여과율 분당 90~120mL
- ☑ 당뇨병은 ‘조용한 신장 파괴자’
- ☑ 건강증·생약 섭취는 콩팥에 부담

정년퇴직을 앞둔 직장인 김모(58) 씨는 10여 년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은 뒤 약 복용과 규칙적인 운동, 식이요법을 병행했다. 수년 간 별다른 증상이 없자 김 씨는 약물 복용과 식단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됐다. 1년여 전부터 피로감과 함께 얼굴과 양쪽 다리가 조금씩 붓고 무거워지기 시작한 김 씨는 최근 다시 병원을 찾았다. 심한 신기능 저하와 함께 단백뇨가 발견되면서 혈액투석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당뇨병성 신장(콩팥)병 진단을 받은 것이다.

■ 이상 있어도 별다른 증상 없어

콩팥은 갈비뼈 아래 등쪽 좌우에 하나씩 위치하는 강낭콩 모양의 장기로, 어른 주먹만한 크기다.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기 때문에 몸속에서 정수기 역할을 하는데, 여과 기능을 하는 것이 사구체다. 사구체는 콩팥의 기본 단위인 네프론 내 위치한 미세한 그물망 형태의 모세혈관 덩어리로, 혈액이 이곳을 통과하면서 노폐물이 걸러진다.



1분 동안 걸러주는 혈액의 양을 사구체여과율이라 하는데, 이 수치는 콩팥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지 보여주는 척도다. 사구체여과율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분당 90~120mL면 정상으로 간주된다. 60~89mL면 경미한 저하, 30~59mL는 중등도 기능 저하로 만성 콩팥질환의 진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5~29mL면 콩팥 기능의 심각한 저하, 15mL 미만이면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상태로 본다.

콩팥은 또 나트륨 등 몸속에 존재하는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혈압을 조절한다. 적혈구 생성을 자극해 빈혈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호르몬도 생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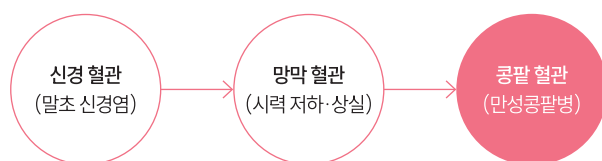
문제는 콩팥에 이상이 생겨도 대개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데 있다. 좋은문화병원 신장내과 허수정 과장은 “자각 증상이 나타났을 땐 병이 꽤 많이 진행됐거나 만성화된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콩팥은 ‘침묵의 장기’로 불린다”고 설명했다.

Ⅰ ‘조용한 신장 파괴자’ 당뇨병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국내 만성 콩팥병으로 투석을 받은 환자의 절반 정도가 당뇨병 환자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당뇨병이 ‘조용한 신장 파괴자’로 불리는 이유다.

미세혈관 합병증의 3단계

고혈당은 제일 가느다란 혈관부터 망가뜨리는데, 이를 **미세혈관 합병증**이라고 한다.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구체 내 압력을 상승시켜 콩팥의 여과 기능이 서서히 저하돼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단백뇨가 발생한다.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방심하기 쉽지만 손상이 진행될수록 회복이 어려워 결국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은 12.4%다. 65세 이상은 25.1%에 달한다. 65세 이상 4명 중 1명은 콩팥에 이상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콩팥 손상뿐만 아니라 뇌혈관, 심혈관, 발가락 괴사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구석구석에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데 있다. 실제로 만성 콩팥병 원인 1위, 망막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원인 1위, 교통사고를 제외한 족부절단 1위가 당뇨병 합병증이다.

Ⅰ 약물·생활습관 관리 병행

당뇨병 환자는 특히 만성 콩팥병을 예방하기 위해 혈당 조절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소변 검사(단백뇨)와 혈액 검사(eGFR)를 병행할 것을 전문의들은 권고한다. 허 과장은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사구체 보호 효과가 입증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ACEi)와 안지오텐신수용체 II 길항제(ARB) 계열의 약물이나 최근 효과가 입증된 억제제(SGLT2)를 처방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약물치료와 더불어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하다. 콩팥 기능이 저하된 환자라면 수분 섭취를 하루 최대 2L로 늘리고 단백질 섭취는 과하지 않게 해야 한다. 짠 음식은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도 필요하다. 콩팥 기능이 나빠질수록 체내 노폐물 제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식단 조절은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건강즙이나 생약 진액류의 무분별한 섭취는 콩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과도한 칼륨 섭취는 심장 박동 이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모든 건강보조식품은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 과장은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모두 투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방심하면 어느 순간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회복 불가능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당뇨병 진단 시점부터 콩팥을 동반자처럼 여기고 관리하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좋은삼선병원

국제신문

바로가기



1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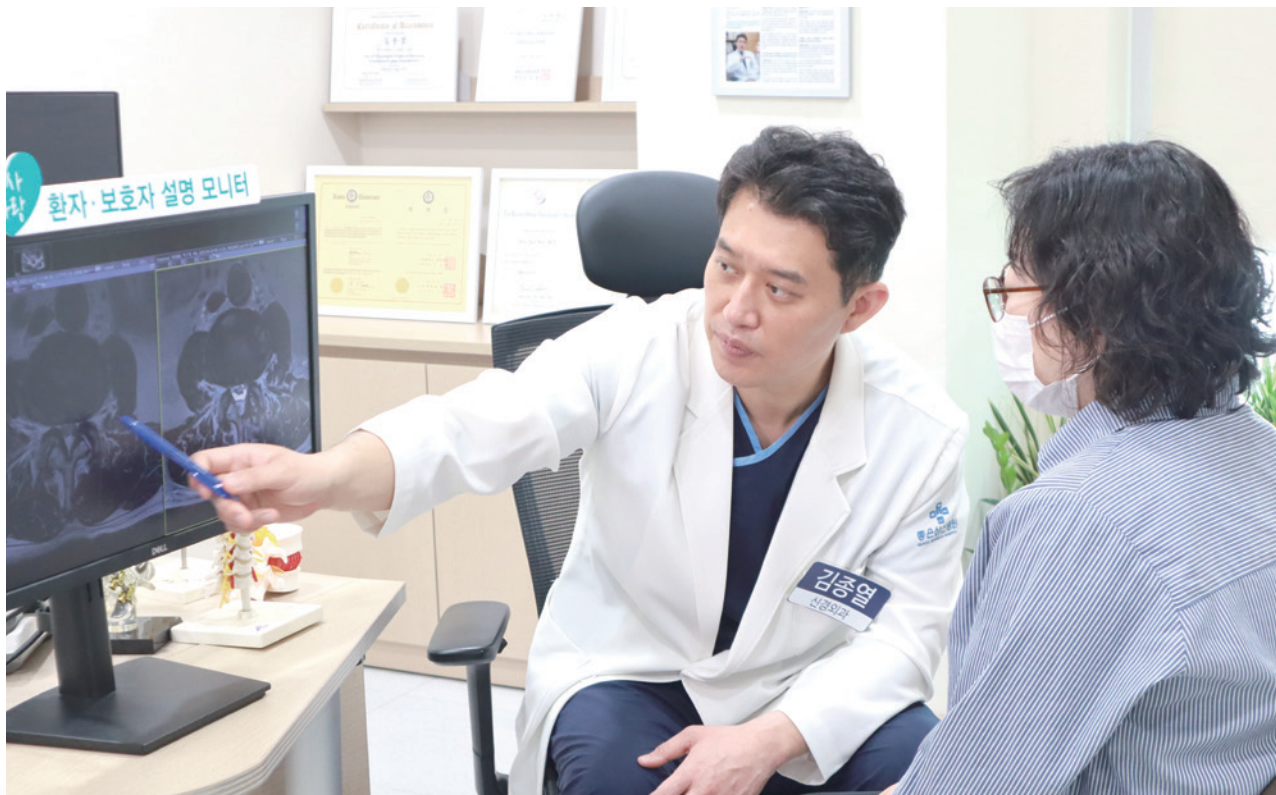
척추센터·신경외과 김종열 센터장

2025년 5월 27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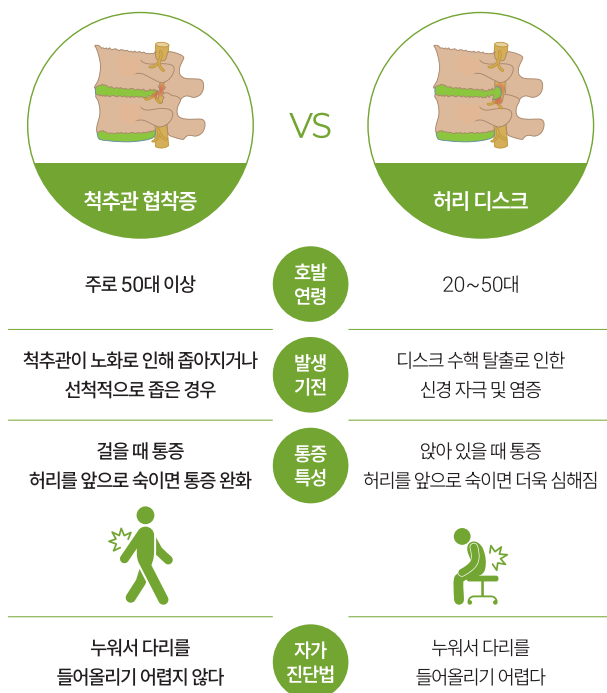
척추관 협착증 고령은 수술 못한다? 양방향 내시경은 가능

- ☑ 노화가 원인...허리디스크와 달라
- ☑ 걸기 힘들어서 자꾸 앉으면 의심
- ☑ 입식 생활 유지와 운동으로 예방

60대 중반의 여성 A씨는 최근 걷기를 포함한 야외활동을 자주 했다. 하루는 평소보다 배 이상 걸었더니 약간의 허리 통증이 느껴졌다. 시일이 지나면서 통증이 점차 심해져 50m 이상 걸지도 못하고 주저 않는 상황이 찾아졌다. 병원을 찾아 검사한 결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받았다. 노년층에서 허리 통증을 단순 피로나 허리 디스크로 생각하기 쉽지만,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이 크다.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디스크는 허리 통증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원인과 증상이 각각 다르다. 좋은삼선병원 척추센터 김종열 센터장(신경외과 전문의)의 도움말로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 등에 관해 알아본다.



좋은삼선병원 척추센터 김종열 센터장이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 MRI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척추관 협착증·허리 디스크 차이

우리 몸을 지탱하는 척추 뼈 뒤에는 뇌에서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통로(척추관)가 있다. 디스크와 협착증은 척추관의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하는 점은 같지만, 발생 원인과 증상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우선 허리 디스크. 정확한 진단명은 추간판 탈출증이다. 척추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가 외부 압력이나 노화 등의 원인으로 튀어나와 척추관 내 신경을 눌러 생기는 질환이다. 나이와 무관하게 발병한다. 주로 허리를 굽히거나 앉을 때 통증이 나타난다.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면 다리에 방사통이라 불리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다리 저림 증상도 나타난다.

이와 달리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 노화로 말미암은 퇴행성 변화(뼈 관절 인대 등이 기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의한 것이다. 퇴행성 변화로 신경이 압박을 받아 통증이 생긴다. 허리에 막연한, 무지근한 통증과 뻣뻣함이 나타나는데, 습하고 찬 기후에 악화되고 따뜻하게 해주면 완화된다. 50대 이상의 환자에 주로 나타난다. 걷거나 오래 서 있을 때 통증이 발생한다. 허리를 숙이면 통증이 완화되고, 여성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나 일명 ‘고부랑 할머니 병’으로도 불린다.

김종열 센터장은 “10분 이상 걷기 힘들고 자꾸 앉아서 쉬어야 한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40대 이후부터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2018년 164만 5,000여 명에서 2022년 176만 6,000여 명으로 늘었다.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80% 가까이 된다.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요추 3~5번과 천추(영치 뼈) 1번 부위에서 발생한다. 방치하면 배뇨·배변 장애, 심하면 하반신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허리는 수술하면 안 돼’ 고정관념

척추관 협착증 치료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초기에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경막외(척수를 감싸는 경막의 바깥쪽 공간) 스테로이드 주사 등 비수술적 치료를 적용한다. 4~6주 이상 치료해도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

수술의 기본 개념은 척추 후방 신경을 압박하는 병변을 제거(감압)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1cm 미만의 작은 구멍 2개를 뚫은 후 한 쪽에는 내시경, 다른 쪽에는 기구를 삽입해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수술하는 양방향 내시경술이 보편적이다.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부분 마취도 할 수 있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에게 유용하다.

김 센터장은 “척추관 협착증 환자 대부분은 고령에 만성질환자이지만, 그들은 ‘허리는 수술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으로 수술을 많이 꺼린다”며 “최소 절개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내시경을 보면서 섬세하게 수술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척추관 협착증 예방과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하다. 스트레칭과 온찜질은 요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 입식 생활을 유지하고, 수영이나 걷기와 같은 충격이 덜한 운동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좋다. 과체중은 척추에 부담을 주는 주요 원인이므로 체중 조절도 병행해야 한다.

좋은강안병원

부산일보

바로가기



18면

갑상선두경부센터 이병주 센터장

2025년 4월 14일(월)

갑상선암 수술 부작용 줄이려면

“수술 중 후두신경 체크하면
쉰소리 걱정 없어”

- ☑ 목 흉터보다 음성 변화가 더 걱정
- ☑ 수술기구에 탈부착 가능 신경 탐침
- ☑ 목소리 변화·성대마비 최소화
- ☑ 수술 전 후두경 검사 반드시 필요
- ☑ 성대주입술로 목소리 호전 가능



갑상선암은 흔히 거북이 암이라고 한다. 매우 천천히 자라고 예후가 좋기 때문이다. 갑상선암 5년 생존율이 100.1%라는 발표가 있을 정도다. 그래서 종양 크기가 1cm 이하 갑상선유두암의 경우는 수술없이 적극적인 관찰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암의 위치가 신경이나 림프절 주변에 있거나 사이즈가 클 때는 바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수술을 하게 된다면 한 쪽 갑상선만 제거하는 반절제와 양 쪽 모두 절제하는 전절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같은 병기의 환자라도 의사의 경험과 선호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반절제나 전절제나 달라질 수 있다. 목 피부 절개를 통한 전통적인 수술법과 목에 흉터가 없는 로봇 수술 등 수술 방법도 다양하다.

■ 흉터보다 목소리 변화에 더 관심

환자 입장에서선 수술 방법도 중요하지만 갑상선 수술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감과 합병증에 관심이 더 많다. 갑상선약(혹은 칼슘제) 복용 여부, 목의 흉터, 목소리 변화 등이 그것이다.

갑상선암 환자들은 수술 후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 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환자들은 목의 흉터보다는 수술 후 목소리 변화라는 답이 더 많았다. 특히 사회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은 목소리 변화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 경력이나 생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흉터도 미용적인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이지만 가릴 수가 있어서 우선 순위가 조금 낮았다.

갑상선 수술 후의 목소리 변화는 갑상선 주위에 있는 신경 손상에

의해서 오기도 하지만 신경 손상 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따금 몇몇 가수가 갑상선 수술 후 신경 손상으로 더는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됐다는 뉴스를 접하곤 한다. 후두 신경 손상을 극복해 재기에 성공한 가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신이 내린 목소리로 전 세계 오페라 무대를 휩쓴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아메리타 갈리 쿠르치의 전성기는 그리 길지 못했다. 갑상선 수술 후 고음이 나오지 않아서였다.

이러한 신경 손상을 피하기 위해 갑상선암을 완벽하게 절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갑상선암 수술에서 신경 손상 후 음성 변화는 가수 등 연예인뿐만 아니라 음성을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갑상선암 수술 시 신경 손상을 줄이기 위해 수술 중 신경을 확인하는 기구가 오래전부터 임상에서 사용돼 왔다. 갑상선 수술 중에 신경 감시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 기구는 수술기구와 분리돼 있어 실제 조직 박리 중에는 신경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술기구에 탈부착이 가능한 신경 탐침이 개발됐다. 최근 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로 있다가 명예 퇴직 후 좋은강안병원 갑상선두경부센터로 자리를 옮긴 이병주 센터장은 신경 탐침과 관련된 4건의 특허를 갖고 있다.

이병주 센터장이 개발한 신경 탐침을 이용하면 수술 중 후두 신경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 빠르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수술을 하다가 기구가 신경 근처에 가면 소리를 내기 때문에 신경 손상없이 안전하게 수술할 수가 있다.

■ 갑상선암 수술 전 후두경 검사는 필수

최근 한 40대 중반 여성인 초기 갑상선암 환자는 수술 전 작은 관을 후두에 삽입해 렌즈를 통해 후두 상태를 관찰하는 후두경 검사에서 예상치 못한 성대 마비가 발견됐다. 갑상선암에 의한 성대 마비가 아니라 환자도 인지하지 못한 원인 미상의 것이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성대 마비가 있어도 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30% 정도다. 성대 마비 환자의 경우 반대쪽 수술 중 성대 손상이 발생되면 평생 기관절개술을 한 채 살아야 한다. 갑상선 수술 전에는 후두의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후두경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반드시 내원해야 한다.

갑상선 수술 후 발생하는 목소리 변화는 신경 손상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갑상선을 싸고 있는 여러 근육이 섬유화하면서 기관이나 후두에 유착되는 것이다. 이럴 땐 수술 전과 후에 각각 음성 검사와 음성 재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 전 시행한 음성 검사는 환자의 기본적인 음성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변화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하다. 음성 재활은 갑상선을 싸고 있는 여러 근육을 풀어주고 유착을 줄이기 위한 목 운동요법과 후두 마사지를 기본으로 하는 치료이다. 이러한 음성 검사와 재활 운동은 적절한 시설과 함께 자격증이 요구되는 언어치료가 담당한다.

갑상선 수술 후 발생하는 음성 변화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수술 중에는 물론이고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하다. 성대 마비가 발생하더라도 이비인후과에서 목소리를 호전시키는 다양한 물질을 이용한 성대 주입술을 시행해 목소리를 호전시킬 수 있다. 이 센터장은 “음성 보전과 재활에 진심인 갑상선암 수술 의사가 있다면 목소리 때문에 수술을 더 이상 미루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초, 개소한 좋은강안병원 갑상선두경부센터에는 홍종철 이비인후과 과장과 김동욱 영상의학과 과장이 최근 합류했다. 동아대병원 교수 출신의 홍 과장은 두경부외과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갑상선암을 비롯해 후두암, 구강암, 침샘암 등의 분야에서 수준높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좋은강안병원 갑상선두경부센터 소속 직원들.
앞줄 왼쪽부터 홍종철 과장, 이병주 센터장, 김동욱 과장.



좋은삼정병원

경상일보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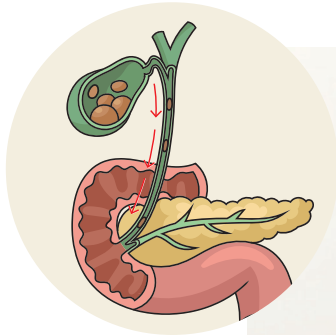


11면

소화기내시경센터 정창길 센터장

2025년 4월 16일(수)

담관결석

기름진 음식 먹은뒤
명치 쑤시면 의심

- ⊙ 총담관에 담즙 뭉쳐 돌처럼 응고된 '담석'생기는 질환
- ⊙ 환자 10년새 70% 늘고 노인 다수...복통·발열·황달 증상
- ⊙ 초음파내시경으로 진단후 ERCP로 담관결석 제거 치료
- ⊙ 채소 충분히 섭취하고 무리한 감량·과식 자제 예방 도움

30대 직장인 A씨는 평소처럼 출근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복통과 구토 증세를 느껴 응급실로 향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했지만, 복부CT 등 검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몇 시간 뒤 통증이 가라앉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다음날 통증이 더 심해졌고 초음파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담관결석(담석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좋은삼정병원 정창길 소화기 및 내시경 센터장과 담관결석의 증상과 치료 및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 담관결석 환자 10년간 70% 증가

담석은 담즙이 뭉쳐져서 돌처럼 단단하게 응고된 덩어리로, 주된 발생 원인은 담즙을 이루는 성분의 비율 변화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담석은 주로 담즙을 보관하는 담낭에서 발생한 뒤, 담즙이 흐르는 담낭관 및 총담관으로 이동해 문제를 일으킨다. 총담관은 간내담관과 담낭에서 나오는 담낭관이 합류하는 관으로 십이지장까지 연결된다.



담석이 있다고 무조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담석을 가진 환자 중 80%는 특별한 문제 없이 생활한다. 그러나 나머지 20%는 담석이 담낭관이나 총담관을 막아 통증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특히 담석이 총담관을 막아 발생하는 담관결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담관결석 환자수는 2014년 3만 5,458명에서 2023년 6만 246명으로 10년간 70% 가까이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28%, 70대가 27%, 60대가 21%를 차지해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76%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컸다.

좋은삼정병원 정창길 소화기 및 내시경 센터장은 “고령화와 서구식 식습관 등의 원인으로 최근 담관결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하는 등 무리한 다이어트도 담관결석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담즙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담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담관결석은 일반적인 복통과 증상이 유사해 초기에 진단이 쉽지 않다. 대표적인 담관결석의 3대 증상은 복통, 발열, 황달이다.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포함하며 식후에 분비되는데,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담즙 분비가 증가한다. 이때 담석이 담낭관이나 총담관을 막으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담낭관이 막힐 경우 급성담낭염, 총담관이 막힐 경우 급성담관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유독 지방 함량이 높은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명치에 통증이 생긴다면 담관결석을 의심할 수 있다.

또한 담관결석의 경우 담즙이 배출되지 못하면 담즙 내에 있는 빌리루빈 색소가 몸에 과다하게 쌓여서 얼굴을 노랗게 만드는 황달을 일으킨다. 암이 담관을 막았을 때도 황달이 생길 수 있으나, 암은 종양이 서서히 자라면서 우리 몸이 이에 적응해 담관의 크기가 확장되거나 염증이 생기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초기에는 고열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담관결석은 갑작스러운 담관 폐쇄로 인해 초기에 고열이 동반될 수 있다.

■ 적정 체중…규칙적 식습관 필요

담관결석을 초기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급성담관염이 진행되면 혈압 저하와 의식 혼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2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환자가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것으로 봐야 하고 심하면 패혈증으로 인해 생명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환자의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담석을 제거하는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피부 바깥에서 배액관을 삽입해 체외로 담즙을 배출시키는 경피적 담도 배액술을 먼저 시행하게 된다.

담관결석의 진단은 초음파내시경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담관은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기 어렵기 때문에 초음파기기가 부착된 내시경을 십이지장에 넣은 뒤 초음파를 통해 담석의 유무와 위치를 확인한다. 정창길 센터장은 “복부초음파는 담낭 검사에는 유용하지만 담관 검사에는 한계가 있다. 복부CT 역시 색소성 담석은 확인할 수 있지만 콜레스테롤류 담석 진단에는 제약이 있다”며 “담관결석이 의심되지만 CT에서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 복부 MRI나 초음파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담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음파내시경으로 담관결석이 관찰되면 내시경적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이하 ERCP)을 통해 담관결석을 제거한다. ERCP는 특수 내시경과 방사선을 이용한 시술로, 내시경을 십이지장까지 삽입하고 십이지장 유두부를 통해 담관에 관을 넣고 조영제를 주입해 담석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다. 이후 미리 넣어놓은 가이드선을 따라 바스켓 또는 풍선 기구를 담관으로 넣어 담석을 제거한다. ERCP로 담관결석을 제거한 뒤에도 재발을 막기 위해 담낭담석을 제거하는 담낭절제술이 필요하다.

정창길 센터장은 “만약 총담관에만 담석이 있고 담낭에는 없다면 ERCP 시술을 통해 담석을 제거하고 담낭절제술은 꼭 하지 않아도 된다”며 “하지만 총담관에 담석이 있고 담낭에도 담석이 있다면 추후 담낭에 있던 담석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RCP 시술을 통해 총담관 담석 제거 후 담낭절제술을 권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또 “담석을 예방하려면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을 피하고 채소나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며 적당한 운동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며 “또한 지나치게 긴 기간 금식을 하거나 급격하게 체중을 줄이는 것도 담석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은 서서히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석 같은 갈맷길 풍광에 매료돼 탄성만

이흥곤

은성의료재단 기획홍보본부장

hung0322@hanmail.net

걷기는 자신과의 만남이라고 혹자는 말한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론 깨달음을 주기도 한다. 필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을 땐 무작정 걷는다. 새로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때의 기쁨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참 많이 걸었다. 주로 산이었다. 흔히 국내 100대, 200대 명산으로 꼽히는 봉우리를 거의 대부분 섭렵했다. 운이 닿아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와 '죽음의 산' K2 베이스캠프까지도 가봤다. 일본이 자랑하는 북알프스 종주도 해봤고, 동남아 최고봉인 말레이시아 키나발루(4,095m) 정상에서 남중국해의 일출도 감상했다.

하지만 백두대간 낙동정맥 등 제대로 된 산줄기 종주는 못 해봤다. 일부 가볼 만한 봉우리와 계곡을 택해 올랐을 뿐이다. 제주 올레, 부산 갈맷길도 마찬가지다. 갈맷길 지도를 펴놓고 꼼꼼히 살펴보니 사실이었다.

이참에 갈맷길 종주에 나선다. 책자에 따르면 갈맷길은 총 9개 코스. 이번에 1-1, 1-2구간, 다시 말해 기장군 임랑해수욕장~기장군청~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코스를 걸었다. 모두 27.5km, 9시간 정도.



오시리아 해안산책로에서 본 풍광. 오랑대 뒤로 대변항과 대변항 뒷산인 봉대산이 한눈에 펼쳐진다.



임랑해수욕장 입구의 박태준 기념관.



테트라포트 관련, 소설 같은 비하인드 스토리

출발점은 임랑해수욕장. 6월 중순 늦은 오전이지만 띄약별 달궈진 백사장을 맨발로 걷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다. 텅 빈 해변은 그야말로 한가하다. 손님도 주인도 없는 낡은 민박집은 빗바랜 흑백사진을 보는 듯하다. 해수욕장 입구에는 포스코(옛 포항제철) 설립자인 철강왕 박태준의 기념관이 있다. 1927년 임랑 바닷가에서 태어난 그는 ‘제철 보국’을 이룬 입지전적 인물. 기장군은 그의 별세 10주기인 2021년 12월 기념관을 열었다. 그의 연대기와 동영상도 볼 수 있다. 발걸음은 인도가 거의 없는 차로를 따라 일광읍 문오성마로로 접어 든다. 문동·문중·칠암·신평·동백 등 5개 마을이 해안을 따라 횡촌을

형성한 전형적인 갯마을이다. 특히 칠암은 일명 ‘아나고’로 불리는 봉장어 마을로 유명하다. 잘게 썬 봉장어회를 갯잎에 올려 콩가루와 초장을 버무린 양배추까지 올려 싸 먹는 맛은 일품이다. 칠암에는 이색 등대가 3개 있다. 봉장어등대, 갈매기등대, 야구등대가 그것이다. 봉장어등대는 칠암항을 대표하는 봉장어, 갈매기등대는 부산의 새 갈매기, 야구등대는 부산사람의 야구사랑을 상징한다. 임랑에서부터 끝없이 보이던 테트라포트(TTP)가 칠암에선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해안가 물양장이 조망이 확 트인 친수공간으로 변해 있다. 토박이 한 분에게 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소설보다 재밌다. 길에 스토리가 없다면 그건 물리적 통로, 기계적 연결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걷기에찬론자의 설명이 기억나는 대목이다.

스토리는 이렇다. 기장군이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칠암 해안에 테트라포드를 설치하려는데 한 횡집 주인이 온몸으로 막았다. 워낙 반대가 심해 그 횡집이 포함된 50m 구간만 비워놓았다. 덕분에 그 횡집은 조망권을 지켰지만 이후 파도가 조금만 드세도 밀려오는 쓰레기로 골칫거리였다. 당시 방파제 신공법을 설명하는 신생 회사가 있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검증되지 않은 신공법 채택은 하지 않지만 딱히 다른 방법이 없이 기장군은 문제의 50m 구간만 일단 맡겼다. 완공 두어 달 만에 발생한 대형 태풍 때 칠암 어촌이 쑥대밭이 됐지만 그 50m 구간만 멀쩡했다. 이후 다른 횡집 주인들이 기장군에 “왜 저기만 다른 시공을 했냐”면서 따졌다. 50m의 기적은 이후 500m로 늘어났다. 기장에 본사를 둔 해양항만건설기술회사가 주인공이다. 이 회사에 따르면 이 공법은 TTP에 비해 공사비가 30~50% 저렴하고 영구적 구조물이라 보수 공사가 필요 없다. 바닷가 쪽에서 보면 벽면에 큰 구멍이 아래위로 뚫려 있다. 센 파도가 밀려와도 한 구멍으로 들어간 파도가 되돌아 나와 파도끼리 맞부딪히는 원리다. 이름하야 ‘회파(回波)블록’이다. 광안리 삼익비치 해변, 기장 죽성리드림성당 세트장 해변, 연화리 해변촌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아쉽게도 매년 태풍 때 월파로 피해를 보는 해운대 마린시티도 2m를 더 높이는 TTP공법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306.2km나 되는 부산 해안에 튼튼하고 가성비 좋은 이 공법은 여전히 찬밥이다. 스마트폰이 나오면 2G폰이 사라져야 하는데 이 바닥에선 그렇지 않다. 세상이 변하는데 공무원 사회의 관행은 여전히 한가보다.

봉대산 정상.



죽성리 죽성리드림성당 세트장. 세트장 가는 길 해변에 구멍 뚫린 벽이 파도를 막아주는 회파블록이다.

해안길 막은 사유지, 지자체가 풀어야

이제 일광해수욕장으로 들어선다. 입구에 ‘오영수 갯마을 문학비’가 보인다. 울산 울주군 언양 출신인 오영수는 광복 즈음부터 일광에 살면서 갯가의 경험을 토대로 단편소설 ‘갯마을’을 발표했다. 소설 속 ‘H리’는 일광 학리다. 하지만 지금 학리 해안길은 갈 수가 없다. 모종교단체의 사유지인 탓이다. 제주 올레는 사유지인 목장 한가운데를 관통한다. 지자체가 중재에 나서자 목장주가 관광 활성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한 결과다. 부산시와 기장군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다. 해서, 물론 기장군청으로 와서 야트막한 봉우리 봉대산(299m)을 넘어 월전해안으로 접근한다. 20분 남짓 걸으면 되는 길을 2시간 넘게 에둘러야 하는 것이다.

기장군청은 갈맷길 1-1의 종점이자 1-2의 시점이다. 다음 여정지 월전 해안으로 가려면 가벼운 산행을 해야 한다. 죽성로를 가다 첫 번째 도로에서 우회전한다. 건너편은 기장군청 야외주차장.

우신네오빌 아파트 106동이 보이면 왼쪽 오름길로 향한다. 등산안내판 옆이 들머리다. 그야말로 동네 뒷산이다. 갈림길에선 친절하게 팻말이 서 있어 길 잃을 염려는 없다. 그저 ‘봉대산’ ‘죽성리’ ‘월전마을’ 방향으로만 가면 된다.

봉대산 정상은 팻말 기준으로 ‘무양마을’과 ‘죽성리’ 갈림길에서 무양마을 방향 50m 지점이다. 들머리에서 20분 걸린다. 바닥에 삼각점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맣고 둥그스름한 돌에 ‘봉대산’이라 적혀 있다.



해동용궁사에서 공수마을로 이어지는 시랑산 해안길에서 본 풍광.

| 항학대 죽성드림성당, 안 들렀으면 후회할 뻔 |

이제 진행 방향은 발걸음을 되돌려 무양마을 대신 죽성리 방향. 곧 기장남산봉수대 터를 만난다. 봉수대는 오간 데 없고 전망은 환상적이다. 발아래 죽성향을 비롯 기장 앞바다와 장산, 일광산도시, 저 멀리 해운대 마천루 등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25분이면 산을 벗어난다. 갈맷길의 정식 경로는 월전~대변항으로 이어지지만 이곳한 죽성리 해안가에는 그냥 지나치기엔 볼거리가 적지 않다. 마을 둔덕에 고고하게 가지를 뻗치고 있는 죽성리 해송, 고산 윤산도가 6년간 유배생활을 하며 자주 올랐다는 항학대, 여기서 100m 떨어진 드라마 세트장이었던 죽성드림성당이 그것이다. 빨간 지붕에 하얀 벽돌이 돋보이는 이국적 건물이라 멀리서도 눈에 띈다.

공수마을 물양장에서 미역을 말리는 풍경.



죽성드림성당에서 갈맷길의 한 포인트인 월전마을회관까지는 걸어서 10여 분. 해안길이라 눈이 즐겁다. 월전마을회관에서 대변항까지는 봉대산 산허리를 탄다. 일종의 봉대산 둘레길이다. 초보 트레커들은 대개 이 길 대신 인도가 거의 없는 월전~대변의 좁다란 2차선 도로로 건지만 위험하다. 갈맷길 경로는 월전마을회관을 지나 ‘동오집’이라는 가게 왼쪽으로 가면 갈맷길 이정표가 보인다. 대변항까지는 40분 걸린다.

멀치축제로 유명한 국가어항 대변항 용암초등학교에 척화비가 있다. 일제강점기 때 항만을 축조하면서 바다에 버린 것을 1947년 마을 청년들이 인양해 이곳에 세웠다.

대변항에서 연화리로 이어지는 해안길은 탁 트인 조망에 멀치횃집, 전복죽집 그리고 예쁜 카페들이 즐비해 발걸음이 가볍다. 오시리아 해안산책로로 접어들면 더할 나위 없이 걷기 편하다. 최근 ‘반얀트리 해운대’ 화재로 가림벽이 쳐져 있는 게 흠이지만. 이곳만 지나면 하얀 포말을 내뿜는 갯바위들이 절경을 뽐낸다. 일출 명소인 오랑대 주변이 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옆으로 난 해안길을 걸으면 해동용궁사. 국내에서 몇 안 되는 해안가 사찰이다. 외국인도 특히 많이 찾는다. 다음 여정인 짬뽕골목으로 유명한 공수마을은 절 입구에서 도로를 따라가도 되지만 왼쪽 한적한 길로 발걸음을 잡으면 절 뒷산인 시랑산 해안길로 이어진다. 20여 분이지만 절경이다. 오래전 해안초소가 있던 구간이다. 송림 사이로 보이는 푸른 바다는 무척 아름답다. 지금은 예쁜 카페가 많이 들어선 공수마을을 지나면 송정해수욕장에 닿는다.

성형외과 김주형 과장님께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마음이 벅차옵니다. 성형외과 김주형 교수님, 지난 시간 동안 선생님께 받았고 또 받을 이진심 어린 치료와 따뜻한 배려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림프부종이라는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저는 한없이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희귀한 병이라는 이유로, 쉽게 이해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고, 하루하루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앞에 김주형 선생님이 나타나, 마치 절망 속에 밝게 켜진 등불처럼, 저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김주형 선생님과 처음 만난 진료실에서 처음 들었던 말씀, "완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움츠러든 저에게, 김주형 선생님께서 확신과 따뜻함, 용기를 불어 넣어주셨어요. 제가 다시 건강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해주신 분, 바로 김주형 선생님이세요.



수술을 앞두고 수없이 흔들릴 때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전문성과 진정성은 제가 부딪히고 싸워 이겨내자며 용기 내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설명 하나하나에 담긴 세심한 배려, 단순한 치료를 넘어 마음까지 살피주신 그 따뜻한 시선과 말투...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매번 다시 용기낼 수 있었던 건, 김주형 선생님께서 저를 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수술 이후에도 한결같이 믿음을 주시고, 응원해주신 선생님의 따뜻한 말과 표정은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발판이 되어주셨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김주형 선생님은 제게 의사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일시켜 세워주신 희망이고, 절망 속에서 꺼내주신 빛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께 받은 이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며,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제 전공을 살려 림프부종 환우님들께 비대면 마음테라피를 봉사 활동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림프부종 카페에서 40분이나 참여해주셔서 함께 정보 교류를 하며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김주형 선생님 홍보열사가 되어 가는 중입니다.^^ 김주형 선생님을 건강하시고,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로 더 많은 아들이 치유되고 위로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김주형 선생님 감사합니다.

2025.04.22. 이○○



고객님의 소중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분만실 수간호사님 외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급히 분만을 하게 되었는데, 제 몸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주시고 자연분만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회복도 무척 빠르게 이루어졌고, 오늘로 57일차 된 아기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혈관 속 희망을 찾아준

좋은삼선병원 9병동 이상현 간호사 선생님~♥

제가 병증이 조금 오래 되어 9년간 병원에 치료와 힘든 투병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혈관이 막히고 잡는 것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귀 병원 입원하고 이상현 간호사 선생님이 혈관을 아주 잘 잡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위로와 안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삼선병원 9병동 선생님~♥

환자와 보호자가 예민하고 까다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서로 늘 한결같은 미소와 친절함 태도로 응대해 주시고, 작은 부탁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늘 웃는 얼굴로 환자를 돌봐 주시는 모습은 진정한 간호인이었습니다.

작은 정성, 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좋은삼선병원 6병동 선생님~♥

여러분의 배려와 응원 덕분에 큰 힘이 되었고, 제 마음도 많이 놓일 수 있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이 따뜻하고 행복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외국인이라 한국어가 아직 서툴지만, 너그럽게 이해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술 실력도 최고! 친절함도 최고!

갑상선내분비외과

김동일 과장님~♥

걱정하는 엄마와 저에게 수술 전부터 안심시켜주시고 수술 잘 해주신 이후 진료시마다 너무 친절하게 진료 봐주십니다. 감사를 담아 이곳에 인사를 남깁니다. 선생님도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세심한 배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비인후과 홍종철 과장님~♥

얼굴 뵙고 직접 말씀드려야 하는데 용기가 없어 이렇게나마 마음을 전합니다. "선생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무사 전미경님, 이경은님, 간병인 조희제님 칭찬하고 싶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인사 해주시고 환자에게 친절하게 응대해주시는 전미경님, 이경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간호통합시스템으로 여러 환자분들을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조희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좋은병원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칭찬해
잘했어

“작지만 큰 힘, 친절”

친절왕
인터뷰

좋은병원들(좋은문화·삼선·강안병원) ‘친절왕’들의 이야기

좋은문화병원



전아진 간호사(8병동)

좋은삼선병원



김희정 주임(간호부)

좋은강안병원



송지혜 간호조무사(A10병동)



저는 환자분께 말을 건넬 때마다 늘 생각해요.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
바쁘고 힘들어도 그렇게 마음먹고 다가가면, 환자분들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참 고마운 일이지요.

전아진 선생님 말씀에 공감해요. 간호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직접 환자를 돌보는 시간은 적지만,
간호사 한 분 한 분이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친절은 시스템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잖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바빠서 웃을 틈이 없다'고 느낀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인사 하나에도 환자분이 눈물을 글썽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건네는 말과 태도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될 수 있구나 싶었죠.

결국 우리가 서로 친절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동료끼리도, 환자분께도요.



그게 진짜 '좋은병원들'이 가진 힘 아닐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친절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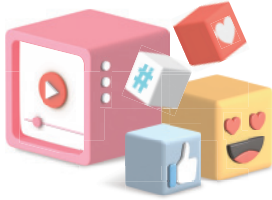
그래서 저는 오늘도, 환자분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려고 해요.
작지만, 가장 큰 친절이라고 믿으니까요.



세 병원의 '친절왕'들이 말합니다.

친절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다듬는 습관입니다.

좋은병원들은 오늘도 더 친절하고, 더 청결하며, 더 절약하는 병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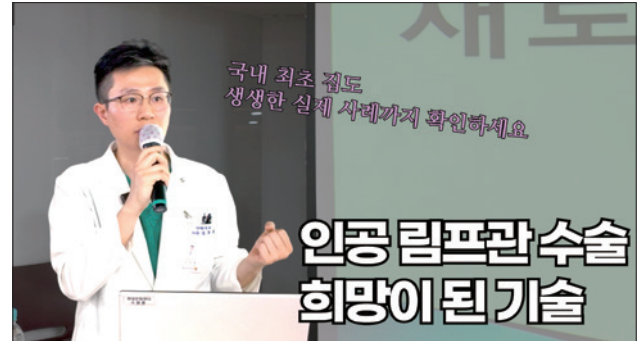


좋은병원들이 다양한 건강정보로
여러분께 건강을 전해드립니다.



디스크, 협착증 신경 압박 심해지면 수술 시기마저 놓칠 수 있습니다

Q **건강클래스** #좋은문화병원 #신경외과 #양방향척추내시경수술 #UBE



“이 수술 제가 국내 최초로 했습니다” 림프관의 미래

Q **건강강좌**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림프부종 #인공림프관수술



“허리 아픈데 디스크인가요?” 증상별로 정확히 구분하는 법!

Q **건강클래스** #좋은삼선병원 #신경외과 #척추센터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근육 절개 없이 허리 수술이 가능하다고요?!

Q **건강클래스** #좋은삼선병원 #신경외과 #척추센터 #척추질환 #양방향척추내시경



서서히 시야를 잃는다...녹내장의 무서운 진행 과정

Q **건강강좌** #좋은강안병원 #안과센터 #녹내장 #녹내장증상



어지럼이 계속된다면 '이것' 의심하세요

Q **건강클래스** #좋은강안병원 #이비인후과 #어지럼증 #어지럼유발질환

NEWS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김주형 과장, 네이버 림프부종 카페와 함께한 림프부종 강좌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김주형 과장은 지난 4월 2일(수), 국내 최대 규모의 림프부종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림프부종 정보 나눔방’에서 림프부종 환우들과 의미 있는 강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강좌는 림프부종 수술 최신 트렌드와 환우들의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 치료 방법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국내에서 바이오브릿지(인공림프관) 수술을 최초로 집도한 김주형 과장이 직접 강의에 나서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문화속 병원장, 2025 대한자궁근종선근증학회 연수 강좌 좌장 참석

좋은문화병원 문화속 병원장이 지난 4월 6일(일), 부산해운대 신라 스테이에서 개최된 ‘2025년 대한자궁근종선근증학회 연수강좌’에 좌장으로 참석하였다. 문화속 병원장은 ‘Session 3: 임상사례를 통한 실질적 접근법’ 세션의 좌장을 맡아 각 연자의 발표를 조율하고 발표 주제에 대한 임상적 통찰을 더하는 등 연수강좌의 흐름을 전문적으로 이끌어 주었다. 특히 이번 세션은 단순 이론이 아닌 실제 임상 현장에서서의 다양한 치료 경험과 전략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굿데이 핫도그’ 이벤트로 직원 사기 진작 및 소통 강화

좋은문화병원은 지난 4월 23일(수), 기획홍보팀과 영양팀 그리고 3개 위원회가 협력하여 직원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 ‘굿데이 핫도그’를 개최하였다. 직원들이 직접 만든 스페셜 핫도그를 제공하며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진행한 굿데이 핫도그 이벤트는 ‘제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함께 발전하는 병원 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찾아가는 건강 강좌’ 성료

좋은문화병원은 지난 5월 26일(월) 오후 4시, 내분비내과 권은진 과장이 보건복지협회에서 ‘찾아가는 건강 강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강좌는 ‘내 몸을 사랑하는 첫걸음, 혈당관리’를 주제로, 급증하는 만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권은진 과장은 혈당 관리의 중요성부터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방법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NEWS

좋은삼선병원



환자들과 힐링 나들이 - “의사가 함께 걷는 회복의 길”

좋은삼선병원은 지난 4월 12일(토), 좋은삼선병원 앞에 모인 11명의 60, 70대 환자들이 3대의 병원 차에 나눠 타고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장군 철마면 아홉산으로 떠났다. 이들은 지난해 정형외과 은일수 관절센터장에게 **로봇무릎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회복했거나 회복 중인 환자들**이다. 함께 동행한 은일수 센터장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함께 그동안 회복이 잘 됐는지 확인하고 돕기 위해 이번 나들이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사상구 배드민턴협회와 업무협약

좋은삼선병원은 지난 4월 24일(목), 신관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배드민턴협회(회장 이봉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체육인의 건강한 활동을 지원하고, 진료 및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협회 소속 선수 및 회원의 건강검진과 치료 협력 ▲스포츠 손상 예방 교육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지역 종합병원 최초 ‘아비고 플러스 + 로타프로’ 도입

좋은삼선병원은 지난 5월 9일(금), 부산지역 종합병원 최초로 머신러닝 기반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진단 장비인 **아비고 플러스**와 **로타프로**를 도입하였다. 아비고 플러스는 3D 형태의 혈관 내 초음파 영상을 제공해 기존 2D 형태의 관상동맥조영술 영상보다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로타프로는 관상동맥 내 딱딱하게 쌓인 죽종을 깎아 내는데 특화된 의료기기로 석회화로 관상동맥 개방이 어려운 환자의 심장 혈류 개선에 사용된다.



좋은삼선병원 × 커넥트현대 건강아카데미

좋은삼선병원은 지난 5월 12일(월), 동구 범일동 커넥트현대 문화센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 뇌혈관 질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최윤희 과장은 “뇌졸중(뇌경색·뇌출혈), 뇌동맥류 등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이상으로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은 갑작스럽게 발생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료에 앞서 예방과 조기 진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NEWS

좋은강안병원



2025 신규간호사 돌잔치

좋은강안병원은 지난 5월 15일(목), 2024년 입사 간호사들의 입사 1주년을 기념하는 ‘돌잔치’ 행사를 따듯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하였다. 공식 식순을 시작으로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 동기들과의 진심 어린 소감 발표, 초청 강연과 편지 쓰기, 케이크 커팅과 기념사진 촬영까지 다채로운 순서가 이어지며 깊은 공감과 감동을 더하였다. 이 자리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서로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함께 걸어온 시간을 축하하며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좋은강안병원 × 수영구보건소 찾아가는 건강강좌

좋은강안병원은 지난 5월 20일(화), 수영구 생활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의는 신경외과 이영서 과장이 뇌졸중의 예방과 조기증상 인지법을 주제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약 9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하여 강의를 경청하였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였다. 이영서 과장은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생명을 좌우하는 질환으로, 초기 신호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GOOD 다빈치 로봇수술 건강간담회

좋은강안병원은 지난 5월 21일(수), 다빈치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 및 보호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수술 후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외과 김동일 과장이 직접 수술 후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환자 중심 진료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수영·남구시니어클럽과 의료지원 협약 체결

좋은강안병원은 지난 5월 27일(화), 부산수영·남구시니어클럽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시니어클럽의 직원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 약 5,500여 명이 우선진료 서비스, 건강 상담 및 건강강좌 교육 등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NEWS

좋은병원들



좋은삼정병원, 90대 초고령 방광암수술 성공

좋은삼정병원은 91세 김귀산 씨의 대형 방광암을 두 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제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배뇨 곤란과 혈뇨로 병원을 찾았으며, 검사 결과 8×5cm 크기의 종양이 방광을 막고 있는 상태였다. 담도결석까지 동반돼 우선 ERCP 시술로 제거 후, 비뇨기수술센터 김정호 센터장이 협진과 철저한 사전 평가를 거쳐 1차, 2차 수술을 진행했다. 모든 종양을 제거한 김 씨는 현재 건강하게 회복 중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 치료를 앞두고 있다.



좋은선린병원, 산불진화 소방공무원에 고압산소치료 의료봉사

좋은선린병원은 지난 4월 17일(월), 이번 관내지역 대규모 산불 관련하여 산불 진화를 위해 애쓴 소방공무원 7명을 대상으로 고압산소치료 봉사를 실시하였다. 좋은선린병원은 4월 말까지 총 25명의 인원을 포함, 안강, 경주 등 인근지역에서 신청받아 고압산소치료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5월까지 추가적으로 이번 산불진화로 고생한 소방대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압산소치료봉사를 실시하였다.



좋은리버뷰요양병원, 개원 12주년 기념식 개최

좋은리버뷰요양병원은 지난 5월 10일(금), 개원 12주년을 맞아 병원 지하 2층 강당에서 기념식을 진행했다. 조현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좋은리버뷰요양병원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도 환자과 지역사회에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되자”고 밝혔다.



좋은애인요양병원, 8년 연속 적정성평가 1등급 달성

좋은애인요양병원은 지난 4월, 8년 연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1등급을 획득하며 독보적인 서비스를 자랑한다. 285병상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평균 병상가동이 96.8%에 달할 만큼 인기를 모으고 있다. 1등급 획득 공신으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꼽는다. 전문 의료 인력 확보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재활의학, 내과, 가정의학, 외과, 흉부외과 등 전문의 8명이 24시간 365일 상주하며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간호사 비율도 전체의 70%에 이른다.

GOOD NEWS

GOOD HOSPITALS

2025.06.16

국제신문

“초고령화는 韓 의료의 거대한 숙제...
노인 의료가 주력분야 될 것”



은성의료재단의 '좋은병원들' 가운데 좋은삼선병원이 올해 개원 30주년을, 좋은강안병원이 개원 20주년을 각각 맞았다. 현재 재단에는 종합병원 5곳, 요양병원 7곳 등 12곳의 네트워크 병원이 있다. 이는 재단이 지 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구정화 재단 회장을 만나 그의 경영 철학과 지역 의료 환경 전반에 대해 들어봤다.

GOOD SAMSUN HOSPITAL

2025.04.28

국제신문

【진료실에서】
신경 압박 줄이는 최소침습 척추수술,
퇴행성 질환 치료에 효과



척추는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퇴행성 변화(나이가 들면서 뼈 관절 인대 등이 기형적으로 변하는 현상) 등으로 척추질환이 생기면 일상 생활에서 삶의 질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다. 다행히 퇴행성 척추질환 치료도 빠르게 진화했다. 과거에는 광범위한 근육 절개와 뼈 절제를 동반한 수술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소침습 척추수술'이 대세로 떠오른다.

GOOD MOONHWA HOSPITAL

2025.05.20

부산일보

좋은문화병원 문화속 병원장
AAGL 심사위원 위촉



좋은문화병원 문화속 병원장이 3년 연속 세계적 권위의 미국부인과내시경학회(AAGL)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19일 미국부인과내시경학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8~11일 캐나다 밴쿠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54차 학회에서 문 병원장은 논문 초록과 영상 연재 선정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한다. 2023, 2024년에 이어 3년째다.

GOOD GANG-AN HOSPITAL

2025.05.12

부산일보

좋은강안병원 이병주 감상선두경부센터장이 주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SCI급 저널 Gland Surgery 2025년 3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부갑상선기능항진증 수술 전 병변 위치 확인을 위한 4D-CT, 초음파, SPECT의 정확도와 임상적 유용성을 비교했으며, 부산대병원·부산대 의대와 공동 진행했다. 이 센터장은 “정확한 병변 확인이 수술 성패를 좌우한다”며 “정밀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좋은강안병원 이병주 감상선두경부센터장이 주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SCI급 저널 Gland Surgery 2025년 3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부갑상선기능항진증 수술 전 병변 위치 확인을 위한 4D-CT, 초음파, SPECT의 정확도와 임상적 유용성을 비교했으며, 부산대병원·부산대 의대와 공동 진행했다. 이 센터장은 “정확한 병변 확인이 수술 성패를 좌우한다”며 “정밀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건강칼럼

좋은문화병원

- 4월 10일 성형외과 김주형 과장-김주형 과장, 림프부종 정보나눔방 강의를 바이오 브릿지 수술법 소개 | 국제신문, 헬스인뉴스, 보건의뉴스, 의계신문, 한국의학신문
- 4월 15일 성형외과 최재연 과장-아이 얼굴 상처 대처 요령! 꼭 알아야 할 열상 응급처치법 | 코리아헬스로그, 헬스인뉴스, 로이슈, 키즈맘, 의계신문, 헬스중앙, 스포츠조선, 한국의학신문
- 4월 30일 산부인과 설현주 과장-임신 계획 미뤘다면 35세 전 '난자 냉동' 고려 | 헬스인뉴스, 스포츠조선, 후생신보, 코리아헬스로그, 이뉴스투데이, 한국의학신문
- 5월 13일 순환기내과 서정민 과장-‘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증산 없다고 방심은 금물 | 이코노믹 리뷰, 라포르시안, 코리아헬스로그, 키즈맘, 한국의학신문
- 5월 20일 신장내과 허수정 과장-‘침묵의 장기’ 콩팥, 자가 증상을 잘 인식화 다반사 | 부산일보, 한국의학신문
- 5월 29일 목 이물감에 식후 가슴 쓰림까지 '위식도 역류질환' 의심 | 헬스인뉴스, 키즈맘, 스포츠조선, 코리아헬스로그, 한국의학신문

좋은삼선병원

- 4월 1일 외과 김진민 과장-담석증, 식후 반복되는 명치 통증 있다면...의심 신호일 수 있어 | 메디컬투데이, 의계신문, 로이슈, 스포츠조선, 이뉴스투데이, 헬스인뉴스, 한국의학신문
- 4월 7일 순환기내과 배창환 소장-70세 이상 '뇌졸중', 30% 이상은 심방세동 문제 | 스포츠조선, 헬스인뉴스, 한국의학신문
- 4월 8일 신경외과 김종열 센터장-척추관협착증과 허리디스크의 차이는? | 메디컬투데이, 헬스인뉴스, 한국의학신문
- 4월 29일 신경외과 최윤희 과장-신경 압박 줄이는 최소침습 척추수술, 퇴행성 질환 치료에 효과 | 국제신문, 한국의학신문
- 5월 9일 신경외과 최윤희 과장-척추질환 치료 패러다임, 최소침습 수술이 바뀐다 | 의계신문, 한국의학신문
- 5월 15일 이비인후과 진효승 과장-환절기만? 여름에도 찾아오는 비염의 이유는 | 내일신문, 의계신문, 헬스인뉴스, 한국의학신문
- 5월 27일 신경외과 김종열 센터장-10분 이상 걷기 힘들다면 척추관협착증 의심 | 국제신문, 한국의학신문
- 5월 28일 신경외과 최윤희 과장-생명을 위협하는 뇌혈관 질환, 조기 예방과 정확한 치료가 답이 | 로이슈, 의계신문, 한국의학신문

좋은강안병원

- 3월 30일 직업환경의학과 김중은 센터장-건설 현장의 위험, 호흡기 질환과 직업성 암 | 국제신문, 한국의학신문
- 4월 14일 감상선두경부센터-감상선암 수술 부작용 줄이려면 "수술 중 후두신경 체크하면 현소리 걱정 없어" | 부산일보, 한국의학신문
- 4월 21일 이비인후과 남기윤 과장-갑작스러운 어지럼증, 귀 질환 우선 의심해야 | 메디컬투데이, 코리아헬스로그, 후생신보, 헬스인뉴스, 한국의학신문
- 5월 21일 부산좋은강안병원, '감상선암 다빈치 로봇수술' 눈길 | 서울경제TV, 한국한국의학신문
- 5월 27일 재활의학과 이상진 과장-아이가 지나치게 반응하거나 무반응이라면? | 뉴스경남, 헬스인뉴스, 후생신보, 부산일보, 한국의학신문
- 5월 28일 직업환경의학과 김중은 센터장-한국형 주치의제, 지방의료 살릴 수도 있다 | 국제신문, 한국의학신문



TV

좋은문화병원

KNN

KNN건강365



4월 11일(금)

당뇨병이 망가뜨리는 콩팥,
투석만은 막으려면?
신장내과 허수정 과장



5월 1일(목)

냉동난자
산부인과 설현주 과장

좋은삼성병원

KNN

건강튜브



5월 15일(목)

뇌졸중
신경외과 최윤혁 과장

KNN

건강365



5월 20일(화)

척추관협착증
신경외과 김중열 센터장



5월 26일(월)

척추유합술
신경외과 최윤희 과장

KNN

NEWS



5월 20일(화)

좋은삼성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열려

좋은강안병원

KNN

NEWS



4월 17일(목)

좋은강안병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개최

KNN

건강튜브



4월 24일(목)

목에 혹 만져지면
'이것' 의심하세요!
갑상선내분비외과 김동일 과장

KNN

메디컬 24시 닥터스



6월 17일(화)

알아야 산다.
갑상선암, 두경부암의 경고
갑상선두경부센터 이병주 센터장, 홍종철 과장



라디오

좋은문화병원

TBN

부산교통방송 건강클리닉



5월 12일(월)

위식도역류질환
소화기내과 손문진 과장

MBC

오후 만세



6월 10일(화)

부인과 질환 바로 알기
산부인과 부문현 과장

좋은삼성병원

KBS

부산의 오늘



7월 2일(수)

양방향 내시경
신경외과 최윤희 과장

좋은강안병원

MBC

오후 만세



5월 14일(수)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이비인후과 남기윤 과장

TBN

부산교통방송 건강클리닉



6월 23일(월)

당뇨병의 올바른 치료
내분비내과 남윤정 과장



신문

좋은병원들

- 4월 7일 은성의료재단,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금 1억원 기탁 | 부산일보 외
- 4월 23일 좋은삼성병원, 울산 첫 '120W 홀몸 레이저 수술 장비' 도입 |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 경상일보
- 4월 23일 좋은선린병원, EMR사용인종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아 | 로이슈
- 5월 5일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사랑요양병원 개원 | 부산일보 외
- 5월 10일 좋은리뷰요양병원, 개원 12주년 기념식 개최 | 시민일보 외
- 5월 12일 좋은병원들, 국제 걷기축제 건강부스 운영 및 캠페인 | 의학신문, 내일신문
- 5월 12일 좋은병원들, 국제표준안전재단과 업무 협약 체결 | 부산일보 외
- 5월 27일 좋은삼성병원, 90대 초고령 방광암수술 성공 | 경상일보 외
- 6월 2일 좋은병원들 간호사들, 10년 만에 한자리에 | 부산일보 외
- 6월 12일 좋은선린병원·포항명도학교, 학생 안전 위한 의료지원 협약 체결 | 경북도민일보, 경북신문
- 6월 12일 좋은선린요양병원, 포항 최초 4주기 요양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 의계신문
- 6월 12일 좋은병원들, 척추 컨퍼런스 장기 개최 | 하이뉴스
- 6월 13일 구자성 이사장-47년 지켜온 지역으로 철학...새로운 패러다임 이끈다 | 메디타임즈
- 6월 16일 구정희 회장-"초고령화는 韓 의료의 거대한 숙제...노인 의료의 주력분야 될 것" | 국제신문

좋은문화병원

- 4월 4일 간호사 위한 '첫돌 기념 돌잔치' | 헬스인뉴스 외
- 4월 10일 성형외과 김주형 과장, 림프부종 수술 '전국구 명' 서울서 초청강의 | 국제신문 외
- 5월 20일 문화속 병원장, AAGL 심사위원 3년 연속 위촉 | 데일리팝, 히트뉴스, 헬스인뉴스 외
- 6월 10일 개원 47주년 기념 예코 플로깅 행사 | 국제신문 외

좋은삼성병원

- 4월 3일 양산부산대병원과 진료 협력 간담회 개최 | 라포르시안, 로이슈
- 4월 10일 스포츠의학화학술대회 '우수구연상' 수상 | 의학신문
- 4월 14일 "의사가 함께 걷는 회복의 길"...환자들과 힐링나들이 | 뉴시스, 로이슈 외
- 4월 24일 사상구 베드민턴협회와 업무협약 | 의학신문
- 5월 13일 뇌혈관 질환 바로 알기 강좌 개최 | 의계신문
- 5월 16일 머신러닝 기반 '아비고 플러스' 도입...심혈관 치료 정밀성 향상 | 보건뉴스 외
- 5월 16일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와 플로깅 행사 | 로이슈 외

좋은강안병원

- 4월 14일 '2025 좋은병원들 내과 심포지엄' 성료 | 부산일보, 의학신문, 시민일보, 로이슈 외
- 4월 29일 '개원 20주년', 수영강 일대에서 플로깅 봉사 | 부산일보, 보건뉴스, 의학신문 외
- 5월 8일 필리핀 마요병원과 교류 협력방안 논의 | 의학신문 외
- 5월 12일 갑상선두경부센터 이병주 센터장, SCI급 저널에 논문 게재 | 부산일보 외
- 5월 19일 '심뇌혈관 주제 찾아가는 건강강좌' 개최 | 부산일보, 헬스인뉴스, 내일신문
- 5월 25일 개원 20주년 취약 아동에 선물 전달 | 부산일보
- 5월 29일 부산수영·남구시니어클럽, 좋은강안병원과 의료지원 협약 체결...노인 건강증진 기대 | 국제신문 외
- 6월 3일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건강친구 클래스' 개최 | 부산일보


www.moonhwa.or.kr | 부산 (051)644-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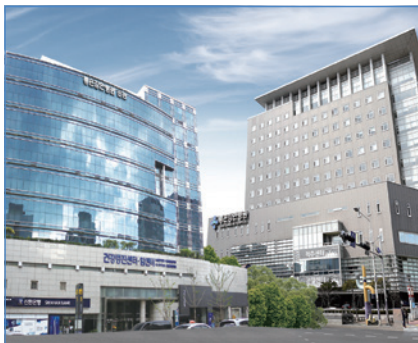
진료과목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유방외과, 갑상선외과, 위장관외과 (간·담체),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부인과내시경수술/자궁근종/산과/난임),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센터소개 부인과내시경 수술센터, 자궁근종센터, 부인암센터, 산과센터, 자연주의 출산센터, 난임센터, 여성 생식기관 선천기형센터, 청소년기 부인과 질환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소아청소년 성장발달센터, 소화기 내시경센터, 인공신장센터, 유방암센터, 갑상선암센터, 척추센터, 관절센터, 특수운동치료센터, 피부미용성형 센터, 건강증진센터, 로봇수술센터, 소아외과&탈장클리닉


www.samsun.or.kr | 부산 (051)322-0900

진료과목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감염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센터·클리닉 소개 로봇인공관절센터, 인공관절센터, 어깨관절·스포츠의학센터, 스포츠운동치료센터, 척추 센터, 재활치료센터, 내시경센터, 간담체센터, 인공신장센터, 혈관시술센터, 뇌혈관센터, 심혈관중재시술센터 좋은기억력센터, 건강증진센터, 응급의료센터


www.gang-an.or.kr | 부산 (051)625-0900

진료과목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중앙혈액내과, 외과(간담체간이식외과 대장항문외과/갑상선내분비외과), 혈관외과, 유방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정신 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방사선 종양학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센터소개 암센터, 건강증진센터, 유방센터, 안과센터, 갑상선두경부센터, 소화기내시경센터, 심장센터, 관절 센터, 척추센터, 뇌혈관센터, 혈관센터, 외과센터, 간담체간이식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특수운동 치료센터, 중추신경계 재활치료센터, 발달의학센터, PET-CT센터


www.sam-jeong.or.kr | 울산 (052)220-7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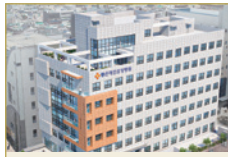
진료과목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정형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응급의학과

센터소개 심혈관센터, 척추 및 관절센터, 뇌신경센터, 복강경센터, 호흡기 및 알레르기센터, 인공신장센터 소화기 및 내시경센터, 비뇨기수술센터, 영상의학센터, 건강증진센터


www.goodsunlin.or.kr | 포항 (054)245-5000

진료과목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가정의학과, 치과, 직업환경의학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센터소개 척추 및 관절센터, 암센터, 화상·창상진료센터, 심장·혈관센터, 뇌·신경센터, 복강경센터, 혈액투석 센터 위·대장 내시경센터, 호흡기 및 알레르기센터, 당뇨 및 갑상선센터, 건강증진센터



www.aein.or.kr
부산 (051)520-7700

좋은애인요양병원 GOOD AEGIN MEDICAL CARE HOSPITAL

내과, 외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노인학과, 한방
내과, 가정의학과
뇌졸중(중풍)센터, 재활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통증치료실, 작업치료실, 연하(삼킴기능)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한방요법실 재활·호스피스병동, 중증환자집중치료실



www.yeonin.or.kr
밀양 (055)350-9988

좋은연인요양병원 GOOD YEONIN MEDICAL CARE HOSPITAL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 한방침구과
암 재활 전인 치료센터, 물리치료실, 통증치료실
한방요법실, 고주파치료실, 고압산소치료실, 온열
치료



www.busanhp.com
부산 (051)326-0900

좋은부산요양병원 GOOD BUSAN MEDICAL CARE HOSPITAL

내과, 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방사선종양학과
가정의학과, 노인학과, 부인과, 한방과
뇌손상재활치료센터, 암재활면역치료센터, 작업·연하·
통증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호스피스실, 중증환자
집중치료실, 고주파치료실, 고압산소치료실, 물리치료실



www.riverview.or.kr
부산 (051)995-0900

좋은리뷰요양병원 GOOD RIVERVIEW MEDICAL CARE HOSPITAL

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한방과
뇌졸중(중풍)센터, 재활치료센터, 물리치료실, 통증
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실, 집중치료실
햇살공원, 옥외공원



www.goodjurye.or.kr
부산 (051)325-0300

좋은주례요양병원 GOOD JURYE MEDICAL CARE HOSPITAL

내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 한방침구과
뇌졸중(중풍)센터, 물리치료실, 호스피스실(말기암)
사회복지프로그램실, 하늘공원, 야외쉼터



www.sunlinrmh.co.kr
포항 (054)245-6000

좋은선린요양병원 GOOD SUNLIN MEDICAL CARE HOSPITAL

재활의학과, 비뇨의학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방과
뇌졸중(중풍)센터, 재활치료센터(재활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통증치료실, 연하재활치료실, 소아
재활치료실), 한방요법실



www.goodsarang.kr
부산 (051)220-7000

좋은사랑요양병원 GOOD SARANG MEDICAL CARE HOSPITAL

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의학과, 산부인과
뇌졸중(중풍)센터, 재활치료센터(재활운동치료실
운동재활치료, 작업재활치료, 통증재활치료, 연하
재활치료), 야외쉼터, 한방요법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병원보를 더욱 알차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구독자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드립니다.



QR코드스캔하고
설문 참여하기



독자 퀴즈



이번호 퀴즈

○○○ ○○○ 수술은
피부에 작은 구멍 두 개만 만들어
한쪽에는 카메라, 다른 쪽에는
수술 기구를 넣어 진행합니다.

지나호

정답 & 정답자

갑상선두경부

김○희 서구 꽃마을로
김○진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박○옥 해운대구 센텀동로
성○석 서구 초장로
최○민 남구 분포로

응모 요령

좋은병원들 홈페이지
(www.goodhospital.or.kr)
웹진 독자퀴즈로
2025년 7월 31일(목)까지
응모해 주시면 정답자(5명)를 추첨하여
신세계상품권(3만원)을 드립니다.

원고 모집

좋은병원들 편집실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필, 시, 칭찬사례, 감동적인 이야기,
경험담 등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주실 때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도 드립니다.

좋은병원들 편집실

TEL. (051) 310-9419
FAX. (051) 316-9295

평생 척추 주치의! 척추센터



신경외과 전문의
척추센터 소장
손상규

신경외과 전문의
척추센터 과장
신태희

신경외과 전문의
척추센터 과장
우준혁

좋은문화병원 척추센터는!



- 1 양방향 내시경 척추수술(UBE) 시행
- 2 환자중심 최소 침습 척추수술 지향
- 3 척추건강관리 : 정확한 진단부터 검진, 수술, 운동 교육 실시
- 4 세계 척추전문 의료진이 찾는 UBE 수술법을 보유!
: 국제 양방향 내시경 척추 아카데미(교육센터) 운영
- 5 특수운동치료센터 운영
: 전문 도수치료, 척추질환 검사 장비 구비

환자중심 맞춤치료

- 양방향 내시경 척추수술(UBE)
- 척추질환 비수술 치료(시술)
- 디스크·협착증(경추/흉추/요추)
- 내시경 유합술
- 척추건강검진 및 관리



좋은문화병원
GOOD MOONHWA HOSPITAL

척추센터(051)630-0960



좋은삼선병원
GOOD SAMSUN HOSPITAL

뇌혈관 센터



뇌경색·뇌출혈
뇌종양·중재적 뇌혈관치료
뇌혈관 중재시술 (인터벤션치료)

혈관시술 센터



대동맥 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말초 혈관질환

척추 센터



척추관 협착증 / 척추재수술 / 감압술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디스크) 절제술
최소침습 척추 유합술(전방유합술)
비수술적 척추 치료 / 척추 외상 / 골절



좋은강안병원
GOOD GANG-AN HOSPITAL

안과센터



대학병원 출신의 검증된
안과 분야별 전문의 체제



독립된 건물의
1F 외래, 10F 수술공간



체계적인 검사시스템,
첨단 진단 및 수술 장비



망막질환
녹내장

당뇨망막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유전성망막질환

노안 백내장
외안부 질환

안과 전문의
4인 진료



김현웅 센터장



임재완 과장



이명신 과장



박찬금 과장

좋은강안병원 신관



금련산역 5번 출구

문의 | T. (051)625-0900

120W 홀뮬레이저 울산최초 도입

요로결석·전립선비대의 최신 수술장비

모세스 테크놀로지 기술을 탑재한 특수장비(특허번호 us-9895196)



적은
통증



빠른
회복



빠른
지혈



수술시간
단축



특허 보호
펄스 기술



수술 중
출혈감소



좋은삼정병원
GOOD SAMJEONG HOSPITAL

비뇨의학과 (052)220-7500

Lumenis Pulse 120H



47

since 1986



30

since 1995



20

since 2005



19

since 2006



8

since 2016



좋은병원들

GOOD HOSPITALS

since 2006

19



since 2010

15



우리가
쌓아온
시 간

“200”년

좋은병원들의 시간이 모여 200년의 신뢰가 되었습니다.

12

since 2013



11

since 2014



11

since 2014



8

since 2016



NEW

2025 OPEN

